

놓치지 마세요! 선상가공업 신고

선상가공업이란?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선상가공업에 해당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업 전 **선상가공업 신고**를 해야합니다!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사항 발생 후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합니다!

* 대표자, 선박의 명칭, 선적항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신고해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원양 산업

제 1185 호
(2025년 9월 15일 발간)

창간: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 월간발행(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해수부 장관 주재 수산유관단체장 간담회 참석 / 04
-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 업무협약 추진 / 05
-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 05
- 2025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 06
- 정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공포 / 07
- IATTC 제103차 연례회의 참석 / 08
- 2026어기 한-솔로몬 입어협상 참석 / 08



대외 기고문

- 기고문 - 새 정부에 바란다 / 09



국내매체 인용

- 북극해, 어장도 열리나 / 11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14



이달의 요리

- 이빨고기 조림 / 22



해외수산정보

■ 국제유가 동향

- 9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70달러 / 23

■ 참치어업 동향

- IATTC, 동부태평양 참치 어업 FAD 금지기 단축 결정 / 24
- WCPO 선망어업, 2024년에 경제 여건 호조 / 26
- EPO 선단, 2024년에 대형 개체 주로 어획 / 27
- 키리바시 2024년 WCPO 어획량, 지난 5년간 최대치 / 28
- 마이크로네시아 선망선단 2024년 어획량 증가 / 29
- 에콰도르 선단, 상반기 EPO 어획량 소폭 증가 / 30
-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7월 가격 최근 3년간 최고치 / 31
- 日 2025년 7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 32
- 美, EPO 참치 어업 지속가능성 관리 주도 / 33
- 美 MMPA 관련 규제 강화, 참치 무역에 미칠 영향은? / 34
- 타이유니온, 저관세 국가로 참치 생산 이전 검토 / 35
- 美 수입업체, 참치 관련 관세 2억 달러 이상 추정 / 36
- 美 관세 여파로 상반기 아시아산 통조림 수입량 증가 / 38
- EU, 2025년 상반기에 참치 통조림 수입 급증 / 39
- 美, 베트남산 보니토 통조림 상반기 수입 급증 / 40

원양산업 제1185호
 발행 2025년 9월 15일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서초-라00012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 영 규
 편집인 김 영 규

Contents

- 프랑스 일부 지자체, 학교 급식에서 참치 통조림 금지 / 41
- 필리핀 선단, 상반기 어획량 부진 / 42
- 필리핀 참치 산업, 협력과 지속가능성 강조 / 42
- NGO “필리핀 대법원 판결, 참치 수출·어업에 위협” / 43
- 참치, 영국 인기 수산물 지위 유지 / 44
- 대만 FCF, 인도양 날개다랑어 연승어업 MSC 인증 / 45
- 유럽 참치 통조림 시장, 2035년까지 50억\$ 돌파 전망 / 45

■ 오징어어업 동향

- 일렉스오징어, 생산량 증가에도 中 시장 고가 지속 / 46
- 페루산 홀볼트오징어 中 가격 급등 / 47
- 日 신문, 8월 말 냉동 오징어류 조업·무역 동향 보도 / 48
- 중국 항만서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가격 보험세 / 49
- NGO “IUU 연루 어선의 칠레 입항 증가” 주장 / 50

■ 명태어업 동향

- Intrafish “흰살생선 업계, 러 상황 변화에 대비 필요” / 51
- 러, 9월 2일 기준 어획량 347만 톤 달성 / 52
- 러 H&G 명태 가격 소폭 하락 / 53
- 러 어업 허가, 2026년 3월부터 전자등록제 전환 / 53
- 러, 태평양 청어 권고 어획량 급증 / 54
- 러, 가공 및 냉동 장비 국산화 성공 / 54
- 러 어선사협회, 환경부담금 인상안에 우려 표명 / 55
- 러, 수산물 물류 구축 박차 / 55
- 러 대법원, 투자권터 분쟁서 수산업체에 유리한 판결 / 56
- 러 RFC, 명태 연육 생산 약 40% 증가 / 56

■ 공치어업 동향

- 日 공치 어업, 근래 보기 드문 호조 / 57
- 日 공치 어획량, 8월 25일경 3,000톤 돌파 / 58
- 日 산리쿠, 9월 들어 공치 양륙 본격화 / 58
- 마루하니치로, 세계 최초 공치 양식 성공 / 59
- 日 홋카이도 푸른생선 어업, 시즌 본격화 / 60
- 8/23 공치 공해 어획량, 최근 3년 평균치 초과 / 61

■ 각국 수산 동향

- NOAA, 수산물 수입 규정 강화 / 62
- 러, 노르웨이 EEZ 봉쇄 경고 / 63
- 터키-소말리아 전략적 수산업 협력 본격화 / 63
- 유럽·미국, 남극크릴 보호구역 설치 요구 증대 / 64
- 中,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 지위 지속 / 64
- 英 연구팀 “저인양어업 탄소 규제, 과학적 근거 부족” / 65
- 베트남, IUU 어업 근절 위한 다각적 대응 강화 / 66
- 아프리카 어장의 전갱이 자원 잠재력 확인 / 66
- FAO-OECD, 글로벌 수산물 소비 지속 확대 예상 / 67



쉬어가는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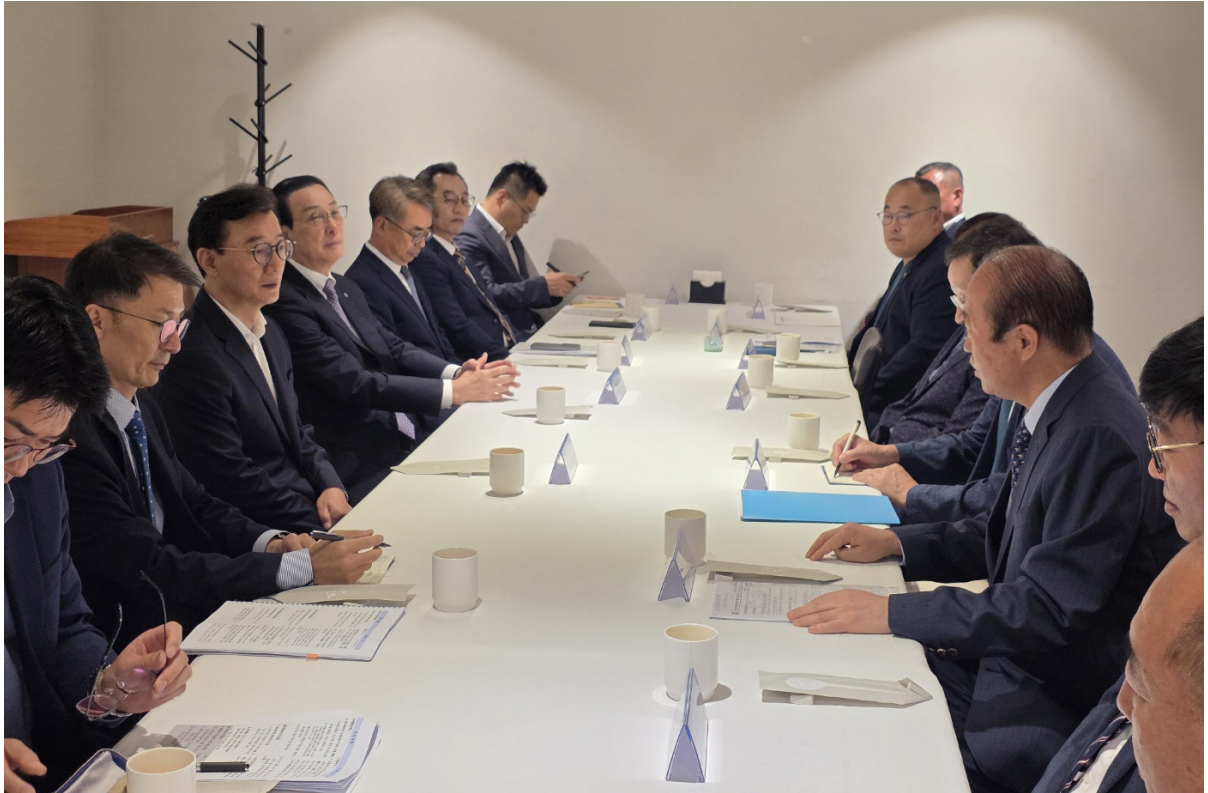
- 향수 - 정지용 / 68



국내 수산 정보

- 8월 오징어 국내 동향 / 69
- 8월 명태 국내 동향 / 71
- 2025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 발표 / 73
- 한국-에콰도르, 해양수산분야 협력 논의 / 73

해수부 장관 주재 수산유관단체장 간담회 참석 수산업 현안사항 협의 및 발전방안 논의



우리 협회는 9월 12일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 수산유관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하였다.

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각계 수산단체장이 모인 자리에서 수산업 현안사항에 관하여 협의하고, 향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회의에 해수부 측에서는 전재수 장관과 함께 수산정책관, 수산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또한 한국수산회,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13개 단체장이 참석

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과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이 참석하였다.

협회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원양산업 현황에 관해 설명하며,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 관련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정책 마련, 제도개선 등의 지원 및 예산확보 등 적극 협조 요청 ▽원양산업 안전펀드사업 예산 확대 및 개선 등의 내용을 건의하였다.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 업무협약의 추진

연구용역 관련 업무협약의 추진

우리 협회는 현재 진행 중인 「원양산업 재도약을 위한 발전 방안」 연구용역과 관련, 연구용역 수행업체 측과 업무협약회의를 진행하였다. 업무협약회의는 9월 3일 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연구용역 수행업체인 한국수산물 수산정책연구소(이하, 연구진)는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 및 업계 의견을 반영한 향후 방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협회와 연구진은 연구 성과를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한 핵심 단계로서 ‘원양산업 재도약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회 농해수위 위원, 정부 부처, 업계, 학계, 연구기관, 언론 등을 초청하여 정책 대안을 사전 검증하고,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형성하며, 입법 및 예산 연계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토론회의 목적이다. 동 토론회는 11월 중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향후 국회 토론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쳐, 단기생존 기반 확립과 중장기 발전 전략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협회 회장단 간담회 개최

원양산업 주요 현안 등 논의

우리 협회는 8월 28일 협회 인근 식당에서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업무의 진행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고, 원양산업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회장단사인 경양수산 박길주 대표, 동원산업 박상진 대표, 동원수산 왕태현 대표, 사조산업 김치곤 대표, 신라교역 김호은

대표, 정일산업 전선중 부사장, 참손푸드 윤재현 대표(이상 가나다순)가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김영규 협회장 및 양 본부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해기사 도입 관련 「선박직원법」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주재 수산단체장 간담회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관련 내용 등이 주요 주제로 논의되었다.

2025년도 원양산업 노사 임금 협정 최종 타결

월 고정급 10만원 인상, 1인 몫 월 282만 7,000원 보장 합의



우리 협회와 전국원양선원노동조합(이하, 원양노조)은 9월 1일 원양노조 회의실에서 노사 임금 협정 조인식을 갖고 협회 소속 회원사의 보유 선박에 승선하는 한국 선원의 2025년도 임금협정서 및 업종별 추가협정서에 서명하였다.

협정식에는 왕인상 동원수산 부사장(노사위원장)과 박진동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하였고, 협회측은 이성재 경영지원본부장과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이 참석하였다.

2025년도 임금협정에서 '월 고정급'은 직급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현행에서 월 10만원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보장급'은 어로계약을 종료한 자(중도 자의하선자 제외)에 한하여 1.0인 몫 월 282만 7,000원을 보장하고 상위 직급에 대해서는 최저 인분을 곱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조업 어기 '초 출어 체항업무비'로 국내 항에 체항 중인 선박(북양트롤선 제외) 수리작업에

참여하는 한국 선원에게 교통비 등의 명목으로 1일 2만원을 회사 부담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어로계약기간 중 선박이 입항하는 경우, '상륙비'를 가불금으로 미화 500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은 추후 정산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참치 업종에 적용되는 추가협정의 경우, 세부적으로 참치연승 업종은 '어기종료수당'으로 어로계약을 만기 종료한 선원에게 승선기간의 월 18만원을 최종 입항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어로계약을 만기 종료하고 동일 회사 소속선박에 6개월 이내 재승선하여 출어하는 선원(중도 하선자 제외)에게 월 고정급의 1개월분을 출어 후 3개월 이내 '근속장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참치선망 업종은 1년 이상 승선 또는 어로계약을 만기 종료한 자에 한하여 직급 구분 없이 '작업독려비'로 개인별 월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업종별 합의사항은 협정일로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 선박직원법 일부개정 공포

외국인 해기사 도입 명문화

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을 9월 16일자로 공포하였다.

국제협약(STCW-F)에 가입한 타국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법률 개정의 취지이며, 해당 내용은 ‘선박직원법 제10조의2제2항’으로 신설되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참치연승업계의 기관사 인력난으로 적기에 출항하기 힘든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오랜 노력 끝에 달성한 결실이다.

지난 2024년 7월 조경태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이 발의한 이번 개정법률안은 2025년 7월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었고, 8월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 심의를 거친 후 9월 16일자로 공포되었다.

법률 제21053호로 공포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의 전문 내용은 이하와 같다.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

선박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또는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를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체약국”을 “체약국 또는 당사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단서 중 “체약국”을 “체약국 또는 당사국”으로 한다.

② 「어선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의 당사국이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어선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다.

제27조제4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IATTC 제103차 연례회의 참석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논의 등



우리 협회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파나마 파나마시티에서 개최된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제103차 연례회의에 참석하였다.

연례회의에는 EU, 미국, 에콰도르, 콜롬비아, 일본, 중국 등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NGO 등에

서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 나일강 주무관(수석대표), 국립수산과학원 이미경 연구사, 협회 해외협력센터 김수민 전문관, 대해수산 박정수 부장이 참석하였다. 우리 협회에서는 협력1부 백상진 대리가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동부태평양 열대다랑어 보존관리조치(2026~2027년 적용)가 개정되었다. 그러나 연승선 과학 옵서버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관련 제안은 부결되었다. 또한 IATTC 위원회 의장 및 사무장 연임 등이 결정되었다.

이외에 ∇FAD 보존조치 개정안 ∇상어 등 부수어 종 보존조치 개정안 등이 논의되었다.

제104차 회의는 내년 9월 유럽에서 개최 예정이다.

2026어기 한-솔로몬 입어협상 참석

2026어기 구매일수, 조업일수 가격 등 입어조건 협의

우리 협회는 8월 25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2026어기 한-솔로몬 입어협상에 참석하였다.

솔로몬 측은 Dr. Christian Ramofafia 수산부 차관, Mr. Edward Honiwala 수산부 국장, Ms. Rinah Mark 선임법률담당자, Ms. Rosemary Maefiti Soma 수산부 법률자문이 참석하였다.

우리나라 측에서는 동원산업 이상범 상무(수석대표), 사조산업 박상윤 과장, 신라교역 강민구 차장(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하였다. 협회에서는

협력1부 최봉준 과장이 참석하였다.

양측은 2026어기의 구매일수, 조업일수 가격 등 입어조건에 협의하였다.



기고문 - 새 정부에 바란다

원양산업, 국가 과제 해결 실마리 제공

새 정부는 현재 전세계가 맞이한 기후변화 위기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위기로 인하여,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식량 생산 기반 확보 및 지정학적·외교적 갈등 속 생존이라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새 정부에 많은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원양산업이다.

우리 원양산업은 20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8%(약 76만 7,000톤, 합작 포함)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수산물 총 수출액의 26.7%에 기여하는 등 우리 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또한 원양산업은 해외 연안국 및 공해에 생산 기반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해외 자원보유국 진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기여하고, 민간외교 및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원양산업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원양산업 내부적으로는 선단 노후화, 선원 수급난, 경영 악화 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산재한 상황이다. 외부적으로는 환경 및 노동인권 등에 대한 국제적 요구기준 및 공해를 관리하는 국제수산기구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지고 있으며, 원양산업 국가들의 자원보유국 진출 경쟁 및 선단 강화 경쟁도 심화되고 있다.

원양산업의 입지 강화는 그 자체로 새 정부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의 위기 극복과 우리 원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새 정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한다.

(1) 친환경 어선 건조 지원 확대

현재 원양 국적선 198척 중 약 157척(약 80%)가 30년 이상의 노후선이며, 특히 참치연승어업은 전세 선박의 약 94%가 노후선이다.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더욱 심화되는 해외 선단과의 경쟁 및 친환경 어선에 대한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수산자원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원양어선 건조에 보조금 지원 및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 증대 등 친환경 어선 건조와 노후어선 세력 대체 및 현대화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2) 해외어장 확보 전략 및 수산외교 다층화 방안 마련

원양어업은 해외수산자원을 확보하는 산업으로 지속적인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자원보유국과 국제수산기구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주요 자원보유국을 대상으로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하여 현지 인프라 개선 등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어업 쿼터와 입어료 혜택을 얻는 전략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안정적으로 공해 쿼터를 확보하려면 국제수산기구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과학적 기여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간-국제기구 간 협

력 전략 마련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3) 원양업계 경영 안정화 방안 마련

국제적 규제 강화 및 조업에 필요한 각종 고정비용의 증가 등으로, 원양업계의 경영악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경영 안정화를 위한 여러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상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톤 세계 도입 등 법인세 감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원양업계의 입어로 등 출어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책자금 용자와 필요시 긴급 지원 프로그램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어업에 필요한 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어선원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극심한 원양어선원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하여 어선원 소득 전액 비과세, 외국인 선원 제도 개선 및 인력 공급망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선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수급 방안과 함께 현 인력의 해외유출 방지 대책이 모두 필요

하다. 해외와 동등한 수준의 각종 세계 인센티브로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필수 인력인 해기사의 경우, 제한적으로 외국인 사관의 도입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5) 해외수산자원 개발산업 배후도시 육성

부산은 원양어선의 입출항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모항이며, 해외에서 생산한 수산물의 전량이 부산으로 반입·유통 공급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아울러 선박 유지 보수 등 연관 산업도 부산에 집중되어 있다. 원양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강화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부산을 해외수산자원 개발산업 배후도시로 육성해야 한다.

잃어버리는 것은 쉽지만, 한 번 잃은 것을 되찾기는 어려운 법이다. 원양어업은 한번 어장에서 철수하면 해외 선단의 신규 진입으로 인하여 재진입이 어렵고, 기술적 노하우가 단절된다면 이를 되살리기 매우 어렵다.

우리 원양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하려면 새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협회 작성 현대해양 투고문, 2025년 6월〉

원양산업 정보 및 광고 접수 안내

더욱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원양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또한 원양산업지에 광고(B5 규격, 컬러 및 흑백)를 희망하시는 경우 아래 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유료). 송부해 주시는 내용은 검토 후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소: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기획홍보부(우편번호: 06775)
- 팩스: 02-589-1630/1631 ○ 메일: kosfa@kosfa.org

북극해, 어장도 열리나

“남극해처럼 시험조업 가능할 듯”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북극 해빙이 녹기 시작하면서 북극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상선의 북극항로 항해뿐만 아니라 원양어선의 조업 가능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학계에 따르면, 북극해(Arctic Ocean)와 그 주변 해역, 특히 베링해, 바렌츠해, 북대서양 북부 해역 등은 수온 상승으로 어획 가능 지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는 대구, 명태, 청어, 빙어, 넙치류, 홍감펍, 오징어, 새우 등이 서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우리에게 익숙한 대중어종으로 대구는 바렌츠해, 노르웨이해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러시아가 공동관리하며 수요가 많은 어종이다. 명태는 베링해, 추코치해에 주로 서식한다. 명태는 미국, 러시아 중심 어획, 한국도 수입에 주력하는 어종이다. 넙치류(Hallbut)는 북동 북극해 수심 깊은 곳에 서식하는데, 넙치류는 고급 어종 대우를 받는다.

〈북극 공해에도 메로가 있다?〉

국내 연근해에서 어획량이 급감한 오징어는 해양 온난화로 분포가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업어획 확대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수심이 깊은 만큼 최고급 어종으로 분류되는 이빨고기(메로) 서식 여부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북극해에 EEZ(배타적경제수역) 외 조업 가능지역(공해)이 존재할지 여부는 북극해의 법적 구분을 보

면 알 수 있다. 북극해는 캐나다, 미국(알래스카),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그린란드) 등 연안 5개국의 EEZ와 일부 공해로 나뉘며, 중심부 약 270만 km²가 공해로 남아 있다. 이 지역을 흔히 High Seas Area 또는 Central Arctic Ocean, 또는 공해라 부른다.

북극 연안 5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외부에 있는 공해는 조업이 가능할까? 북극해 중심부는 이론적으로는 공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업이 제약된다. 다자간 국제협정에 의해 공해 조업이 잠정 금지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협정으로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Agreement to Prevent Unregulated High Seas Fisheries in the Central Arctic Ocean)’이 있다.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은 캐나다,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덴마크 등 연안 5개국 외에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아이슬란드 등 총 10개국이 협정에 합의했다.

〈CAOFA 협정으로 자율관리〉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에서는 해양생태 연구와 자원조사 연구를 선행할 것을 협의했으며, 상업어업은 2021년부터 16년간 잠정 금지하고 있다. 이는 5년 단위로 연장 가능하다. 이 말은 즉, 현재는 북극 중앙 공해에서 어업이 허용되지 않으나 참여국들은 연구 활동이 가능하고, 과학적 데이터 축적 후에 조업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은 2018년 10월 그린란드 일리리 사트에서 맺어졌으며, 2021년 6월 25일 발효됐다. 협정 유효기간은 최초 16년이다. 이후 5년 단위로 자동 연장 가능하다. 이는 중앙 북극해 공해 수역에서 사전 연구 없이 이뤄지는 상업적 어업을 방지하고, 과학적 연구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체계를 마련한다는 취지로 맺어진 협정이다. 어획 가능성, 생태계 영향, 자원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 공동 조사 선행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사국들은 공동 또는 개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정보는 조사자료, 모니터링 결과, 위성 정보 등 조업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학기반의 논의 체계 구축하고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업 가능 여부는 만장일치로 해지 가능하다.

어로 활동을 포함한 조사활동 허용 요건은 공해에서 조업 목적의 활동은 금지돼 있지만, 조사 목적의 활동은 협정에 따라 절차를 밟아 진행 가능하다. 조사활동 허용 절차와 요건은 △사전 홍보 및 협의 △연구 목적 △연구 자료 공유 의무 △환경보호 및 안전 준수 △SAG(Scientific Advisory Group) 권고 사항 반영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SAG는 공동 연구계획, 우선 연구 분야, 조사 일정 등을 권고하며 각국은 이를 기반으로 조사 진행할 수 있다.

〈공동 과학조사 등 선행〉

예를 들어, 한국이 중앙 북극해 수역에서 생물종 분포와 자원량 조사를 하려고 한다면,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10개국에 사전 통보하면 된다. 다른 국가와의 공동 연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 조사 활동 중 어획 시 시료 수집 수준 유지해야 하며, 조사 종료 후 수집된 데이터는 각국 및 SAG에 보고해야 한다. SAG 검토 및 향후 논의 반영을 논할 수 있다.

과학조사 결과에 따라 중앙 북극해에서 어업이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 자원 풍부한데 이를 활용하지 않고 무조건 금지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고 더불어 지속 가능한 이용이 가능하다는 판단과 과학조사 결과에 따라 어업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 합의 없이는 상업적 조업은 장기적으로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속적인 연구 참여 및 외교적 입장 확보가 중요하다.

최근 북극 지역 해빙(海氷)이 2030년대에 소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이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동 기간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속 가능한 이용’ 전제돼야〉

북극해는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당사국총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의장국으로서 2022~2023년 2년 연속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 당사국총회를 국내에 유치, 개최하는 등 활발히 기여하고 있다.

당사국총회에서는 중앙 북극해 공해의 해양생물 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 Joint Program for Scientific Research and Monitoring)을 채택하기도 했다. 향후 이 프로그램이 시행될 경우 협정 수역에서의 지속 가능한 어업 가능성 및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 등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학조정그룹(SCG)의 절차규칙을 채택해 최적의 과학적 정보를 근거로 당사국총회의 결정을 지원하는 과학그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북극해 인접은 여러 RFMO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NEAFC(North-East Atlantic Fisheries Commission), NAFO(Northwest Atlantic Fisheries Organization), NPFC(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등이 그것이다. 이중 북태평양을 관할하는 NPFC에는 한국도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주로 오징어, 심해어 등을 관리한다.

〈메로 등 심해 고급어종 서식 가능성은?〉

북극해는 대서양·태평양과 연결돼 있어 대구·청어·빙어 등 다른 냉수성 어류가 우점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정석 국립수산물과학원 원양자원과 연구관은 “CAOFA 과학조정그룹(SCG)에서 서식 어종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명태 자원이 북상하거나 북극 한 대성 어종이 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에 따라 상업어업은 불가능하나 남극해와 같이 조업이 과학 조사와 시험조업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현애 한국원양산업협회 전무는 “상업조업은 어렵지만 시험조업은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가능하다면 러시아 합작선이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요한 새 어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느껴진다.

사실 남극해에서 조업하고 있는 정일산업, 흥진실업, TNS산업 등 국적 원양선사 또한 과학조사와 시험조업을 통해 메로(이빨고기) 등을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극해도 비슷한 순서로 조업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

당장 어장이 열리지 않더라도 당사국들과의 공동 과학연구 활동, 과학조사, 시험조업 등을 거쳐 생물 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여기에 남극해처럼 조사되지 않은 심해에서 메로 등의 고급 어종이 서식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북극해는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하거나 연구해보지 않은 미지의 바다이기 때문이다.

〈“남극해도 개척했는데…”〉

메로 등 고급 어종의 서식이 확인된다면 국내 원양선사들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공동연구활동, 과학조사, 시험조업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 남극해에서의 자원 이용처럼 말이다.

정일산업 관계자는 “남극해 어장도 개척했는데 북극해 어장을 개척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우리가 남극해를 개척한 것처럼 북극해 어장도 충분히 개척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여기에는 생물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전제가 깔린다.

요약해보면 북극해에서 어획 가능한 자원으로는 대구, 명태, 청어, 빙어, 넙치류, 새우 등이 있다. 북극 바다는 대서양·태평양과 연결되어 있어 대구·청어·빙어 등 다른 냉수성 어류가 우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과학조사와 시험조업 등을 통해 어종, 자원 분포량, 지소 가능한 이용이 가능한지 등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신현애 한국원양산업협회 전무는 “북극해도 남극해와 같이 과학조사, 시험조업을 할 수 있는 문안(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기후변화와 함께 해빙이 녹듯 세계 어업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대해양 2025년 9월호 특집기사 인용〉



명예해양수산관 리포트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관

가. 말리, 안정적 물자 공급 추진

- 말리 화주위원회(Comité Malien des Chargeurs, CMC)는 교통·인프라부 지시에 따라 바키시마 실라 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이끄는

대표단을 8월 20일부터 세네갈 다카르에 파견하였다. 이번 임무는 다카르 자유행에 억류된 말리 컨테이너 해제를 위한 것이다.

- 다카르 항은 말리 수출입 물량의 약 60%가 통과하는 주요 관문이다. 매일 1,000여 대의 트럭이 다카르와 바마코를 오가며, 항만 혼잡 시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지연돼 경제 운영자들에게 큰 비용 부담을 초래한다. DP World 터미널에서 말리 화물은 21일간 무료 보관되지만, 이후에는 체선료가 부과되어 수입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 이로 인해 쌀, 설탕, 기름, 시멘트 등 필수품 공급이 차질을 빚고, 말리 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 말리는 코나크리·아비장·로메 항구도 활용하고 있으나, 다카르는 여전히 핵심 거점이다. CMC는 세네갈 항만 당국과 협력해 물류 지연을 줄이고 회랑 운영을 정상화할 방침이다. 또한 세네갈에 건설 중인 산디아라 내륙항과 다카르-바마코 철도 재활성화가 중장기적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CMC는 이번 임무를 통해 추가 비용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물자 공급을 보장해 나갈 것이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1,595
	3.4~10kg	1,495
	1.8~3.4kg	1,395
	1.5~1.8kg	1,245
	1.5kg 미만	1,045
눈다랑어	10kg 초과	1,245
	3.4~10kg	1,245
	1.8~3.4kg	1,245
	1.5~1.8kg	1,095
	1.5kg 미만	895
가다랑어	3.4kg 초과	1,445
	1.8~3.4kg	1,395
	1.5~1.8kg	1,245
	1.5kg 미만	1,045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유류/톤)	조사일
다카르항	MGO	527	'25.8.26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관

가. 해양 부분 탈탄소화 나서

- 피지, 통가, 바누아투 3개국이 저탄소 해상운송 로드맵과 MRV(모니터링·보고·검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5개년 지역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태평양 해양 부문의 구조적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노후화된 인프라, 낙후된 선박 기준, 운임·화물 체계 불일치, 선대 현대화 지연 등이 주요 과제로 포함된다.

- 피지는 총 2,100만 달러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정책 개발, 시범 인프라 투자, 해양 배출 MRV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선별된 항만에 혁신적 인프라 투자를 시범 실시해 섬 간 운송 개선, 항만 효율성 향상, 정부의 해운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 이번 프로그램은 파리협정에 따른 피지의 국가별 기여(NDC) 이행과 2050년 순배출 제로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협력하여 추진되고, 대한민국 해수부도 지원하고 있다.

나. 솔로몬, PIF에서 美·中 등 주요 공여국 제외

- Sitiveni Rabuka 피지 총리는 솔로몬제도가 다가오는 태평양 도서포럼(PIF) 회의에서 약 20개국을 제외하기로 한 결정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확인하였다. 제외 명단에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공여국도 포함되어 있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태평양 도서포럼의 통합과 협력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Rabuka 피지 총리는 과거 일부 마이크로네시아 국가들의 포럼 탈퇴 논의와 관련해 피지가 부당하게 비난받아 왔으며, 포럼 정신을 보존하고 이전 지도자들로부터 이어받은 파트너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반면, Jeremiah Manele 솔로몬제도 총리는 이번 결정이 지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주권적 조치라고 설명하며, 외부 압력에 대한 주장을 일축하였다. 그는 참석 인원 제한이 기후재정과 피지가 제안한 '평화의 바다' 구상 등 핵심 쟁점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 조치는 대만과 수교 관계를 유지하는 태평양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2019년 솔로몬제도가 대만에서 중국으로 외교 관계를 전환한 이후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 Rabuka 피지 총리는 공여국들의 회의 불참 결정이 지역적 단결이 필요한 시기에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피지가 수십 년간 쌓아온 협력과 공동 지역 안보를 지키기 위해 태평양 국가 간 연대를 지속적으로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 피지, IMO 사무소 개설로 해양 안전 강화

- Ro Filipe Tuisawau 공공사업부 장관은 태평양이 기후변화, 오염, 취약한 해양 거버넌스 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새로 개설된 IMO 지역사무소(RPO)가 해상안전, 오염 방지, 탈탄소화, 법률개혁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관은 피지의 교통부문 기본계획과 탈탄소화 전략을 소개하며, RPO가 이를 국제 기후 목표에 맞춰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IMO 사무총장 Arsenio Domínguez는 해상운송을 “경제와 공동체의 생명선”이라고 평가하며, RPO가 태평양 협력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SPC 부사무총장 Paula Vivili 박사도 RPO가 지역 요구에 부응하며, Pacific One Maritime Framework의 필수 요소라고 평가하였다.

라. 중국과 농업 분야 협력 확대

- 중국은 피지 농민 지원을 위해 식량안보,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입장은 중국 대사가 피지 농업부 장관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강조되었다.



- Zhou Jian 주피지 중국대사는 농업 분야 양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기술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하고, 농민과 농촌 지역사회를 지원할 잠재적 사업 기회를 함께 모색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번 협력 강화는 양국 간 농업 분야 실질적 협력과 피지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 피지 수·출입 무역 변화

- 피지 대중국 수출은 금, 목재칩, 카바 중심으로 2,150만 달러 증가한 2,360만 달러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대미 수출은 카바, 강황, 스낵류 호조로 3,550만 달러로 소폭 증가하였다. 일본과 싱가포르 수출도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 수입에서는 싱가포르가 최대 수입국으로 3,540만 달러(32.9%) 증가한 1억 4,300만 달러를 기록했고, 중국은 통신장비, 차량, 위스키 중심으로 1,550만 달러 증가했다. 뉴질랜드 수입은 8,750만 달러로 분유·유제품 수입이 확대되었으며, 일본과 호주도 큰 폭 증가세를 보였다.
- 재수출은 지역별로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다. 통가로의 수출은 42.7% 감소한 820만 달러였으나, 싱가포르로는 460만 달러, 투발루로는 410만 달러로 증가했다. 반면 중국으로의 재수출은 30.5% 감소한 34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바.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비고
날개다랑어	10kg 상	2,300	로인가공용(PAFCO)

사.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Total	MGO	1,349	'25.9.10

박상천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박상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청년 해양기술 역량 강화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KKP)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및 한-인도네시아 해양기술협력연구센터(MTCRC)와 함께 '한-인도네시아 해양기술 역량강화 장학사업(KIOTEC-CEA)'을 추진하고 있다.
- 이 사업은 UN '지속가능한 해양과학 10년(2021-2030)'의 하나로, 인도네시아 청년 세대의 학문적·기술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장학사업은 석사 장학금 지원, 전문 교육·훈련, 공동 연구, 젊은 연구자 교류를 포함하며, 현재까지 40명의 학생이 6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 최근 자카르타에서 열린 석사 장학생 논문 세미나에서는 12명의 학생이 연안 생태계, 수산 기술, 응용 해양학 등 다양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자들은 이번 세미나가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자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했다.

나. 해양 생태계 복원 추진

- 인도네시아 정부는 <깨끗한 바다, 건강한 바다>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하고, 북자카르타 까말무아라에서 맹그로브 숲 개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바다 쓰레기 문제 해결 ▲해양 생태계 복원을 중심 목표로, 국가 맹그로브 구역을 복원·보전·교육·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한다. 사업 계획에는 202종의 토종 맹그로브 식재와 첨단 양식 시설 구축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안 방어와 블루카본 저장 기능을 강화한다.



- 이번 출범 행사에는 7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쓰레기 관리, 환경 보전, 지역 경제 발전을 아우르는 블루 이코노미 정책 실현 사례로 발전시키고, 궁극적으로 깨끗한 바다와 건강한 생태계를 기반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 보호종 보전과 지역 감시 강화

- 인도네시아 정부는 서칼리만탄 삼바스군 카펫 섀파 록 항구에서 적발된 바다거북알 5,400개 밀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증거물과 용의자 MU를 서칼리만탄 고등검찰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MU는 지난 7월 12일 폰티아나크 해양수산물자원감시국과 육군 군사경찰 합동 작전에서 체포됐으며, 증거물에는 휴대전화 2대, 거북알 일부 150개, 범행 영상 USB 등이 포함되었다.
- 당국은 이번 수사 완료와 검찰 이관을 보호종 어류 보전과 강력한 법 집행 의지의 사례로 설명하였다. 해양수산물부 장관은 바다거북 밀수의 주요 통로인 서칼리만탄 지역 감시 강화를 지시하였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Pertamina	MDF	990	'25.9.5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장 동향

- 아메리칸 사모아 및 연근해 쿡 아일랜드 어장에서 날개다랑어를 평균 0.5~1톤,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평균 0.3~0.7톤을 어획하여

전월 수준을 유지 중이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라운드	1,570
눈다랑어	라운드	1,370
가다랑어	라운드	1,37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gal)	조사일
클리퍼오일	디젤	2.97	'25.9.6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어업법 개정

- 뉴질랜드 정부가 수십 년 만에 어업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어족 자원이 풍부할 경우 어획한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송어·잔디잉어 등 민물 어종 양식 규제를 완화해 산업 확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정부는 2035년까지 수산업(천해·양식 포함) 수출액을 현재 22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계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해 어획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고, 기존 규제의 비현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그러나 환경단체와 일부 정당은 우려를 제기하였다. 노동당은 미사용 쿼터의 이월이 특정 어종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원주민 단체와



환경단체는 상업적 이익이 생태계 보전 원칙보다 앞설 수 없다며 경고하였다. 이번 어업법 개정은 뉴질랜드 수산업의 성장 기회를 열었지만, 동시에 남획 방지와 환경 보전이라는 중요한 과제를 남겼다.

나.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호키	2L	2,200
	L	2,200
	M	2,000
	S	1,900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더니든	MGO	916	'25.9.3

이동춘 모리셔스 명예해양수산물관



이동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해양관리 국제 세미나 개최

- 2025년 8월 6일, 모리셔스 머 루즈 (Trevesa House, Mer Rouge) 에서 “해저 지형도: 해양 관리 이행을 가능하게 하다”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해양 여성 네트워크(WOMESA)가 주최하고, 모리셔스 대학교·수로국·주택토지부가 공동으로 주관하였다.
- 세미나에서 수로국 Muthukumar 사령관은 해저 지형도가 안전한 항해, 환경 보호, 연안 회복력, 경제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수로국은 단순한 직업이 아닌 사명임을 언급하며,

여성과 젊은 세대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과 Q&A,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학계, 정부, 해양 산업 관계자들이 지속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해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나. 자유무역지대 통한 경제 성장 극대화

- 모리셔스 정부와 경제개발위원회(EDB)는 2025년 8월 21일, “글로벌 비즈니스 회사를 위한 자유무역지대(Freeport) 활용 기회”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모리셔스의 무역·금융 허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자유무역지대 내 글로벌 기업(GBCs)의 참여를 촉진하고 정책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재무부 차관 Dhaneshwar Damry는 개회사에서 자유무역지대를 모리셔스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목하며, GBC의 실질적 기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특히 매년 약 3,000억 달러가 모리셔스를 경유하지만 투자금액이 장기 유지되지 않음을 지적하며, 인프라·항만 현대화, 금융 및 디지털 연결망 확장을 통한 투자자 유치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그는 또한 모리셔스가 AU의 Agenda 2063과 SADC의 Vision 2050과 연계해 인도-아프리카 간 전략적 교역 통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 EDB 산제이 분준 의장은 자유무역지대가 고용 창출과 수출 확대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며, 정부의 New Africa Strategy와 연계해 시장 확장과 정책 혁신을 통해 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이번 워크숍은 관리회사, 글로벌 기업, 정부 부처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모리셔스 자유무역지대가 글로벌과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톤)	조사일
ENGEN	MGO	800	'25.9.8

이상우 아르헨티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상우
명예해양수산관

가. 아르헨, IUU 반대의 날 행사

- 아르헨티나는 9월 3일 IUU 어업 반대 회의를 개막하였다. 이 회의는 산 마르틴 궁전과 수산부 본부에서 5일까지 진행한다.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과 남대서양 주권 수호에 대한 주요 위협 중 하나에 직면하여 국가 전략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 소위 마일 201에서 운항하는 외국 함대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해 실시간 제어 도구, EEZ 한계에서의 순찰 및 새로운 위성 기술도 제시되었다.
- 의제에는 칠레, 페루 및 CALAMASUR 조직의 기여와 함께 불법 어업과의 싸움에 대한 지역 경험 발표도 포함된다.
- 아르헨티나는 다자간 포럼에서 이루어진 약속에 따라 IUU 어업을 예방, 억제 및 제거하기 위한 국가 행동 계획의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발표는 최근 WTO 어업 보조금 협정을 비준했다는 중요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나. 2025년 7월 수산업 생산지수 급감

- 2025년 7월, 해양 어업 활동은 최근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달 중 하나를 겪었다. 통계연구소사원 (INDEC)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7월 수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2.8% 하락했다.
- 그러나 계절 조정 시리즈를 분석할 때 6월 대비

8.6%의 반등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몇 주 간의 급격한 수축 이후 약간의 회복을 시사한다.

- 올해 첫 7개월 동안의 누적 수치는 위기의 규모를 확인시켜 주었다: 1월과 7월 사이에 2024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감소폭은 34.2%에 달했다.
- 오징어는 기준 월에 전년 동기 대비 31.7% 감소한 반면, 1-7월 누적 성장률은 여전히 29.4%를 유지하였다. 이는 새우보다 더 유리한 역동성을 반영한다. 7월 어획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8% 증가했지만, 올해 나머지 기간에는 3.3% 감소했다.

다. 마르델플라타 어업, 대규모 해고 사례 속출

- 아르헨티나 마르델플라타에서 국제 대구 시장 가격 조정 및 기타 구조적 문제로 대규모 해고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Caputo Group의 일부인 Ostramar 회사의 사례로, 등록된 필렛 50명을 해고했다.

라.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L)	조사일
Epsol YPF	MGO	1,320	'25.5.9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관

가. 가나, 소규모 어민 보호

- 가나는 새로운 수산양식법을 통해 카누 어업 전용 구역을 기존 6해리에서 12해리까지 확대하여 연안 자원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산업용 트롤어업의 불법 조업을 차단하고, 해양 생태계 보전과 소규모 어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나. 어민 대상 교육 및 훈련 실시

- 노르웨이 정부 지원으로 열린 중앙 지역 어류 박람회에서는 어민들은 지속 가능한 어업 관행과 품질 관리 교육을 받았다. 또한 85개 인증 훈증 가공 시설을 활용한 무료 훈련도 시작되어, 어민들의 시장 접근성 확대와 생계 향상이 기대된다.
- 이번 박람회는 서아프리카 연안국 어민들의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 진행되었다.

다. KMI, 글로벌 아카데미 개최

- 가나 아크라에서 8월 18~29일 열린 “CAPFISH 글로벌 여름 아카데미”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과 세계해사대학(WMU)이 공동 주최하고, 해양수산부가 지원한 IUU(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 교육 프로그램이다.
- 서아프리카 연안국 공무원과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해 소규모 어업과 해상 범죄를 주제로 사례 연구와 토론을 진행했다. 개막식에는 박경식 가나 한국대사가 참석해 한국 수산업 경험과 불법어업 근절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참가자들은 가나 테마(Tema) 어항을 방문해 출어 준비 중인 트롤선과 참치 선망선 하역 과정을 직접 참관하며 현장 이해를 높였다.

라. KMI, 지속가능 수산업 발전 기여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수산 ODA 사업의 하나로 가나 Tema 카누 선착장 인근 350평 부지에 현대식 생선 훈연장과 복지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2026년 약 40억 원 규모로 진행되며, 가나 수산위원회 및 수산양식부와 협력하여 여성 어업인의 가공·유통 역량 강화, 성평등 촉진,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 수산업 발전을 목표로 한다.

- 주요 내용은 △훈연·수로·냉장고 등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지원 △여성 어업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이다.
- 현재까지 기초선 조사, 현지 실태조사, 정책결정자 연수, 국제 워크숍 개최 등으로 기반을 마련했으며, 향후 전통 기술을 접목한 아프리카 훈연가공시설 연구도 진행 예정이다.
- 단기적으로는 가공·유통 역량 강화와 어획 손실 감소, 장기적으로는 여성 경제 참여 확대와 가나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마. 어가 동향

어종	규격	가격(\$/톤)
황다랑어	10kg 초과	2,200
	10kg 이하	1,760
가다랑어	3.4kg 초과	1,550
	1.8~3.4kg	1,500
	1.5~1.8kg	1,350
	1.5kg 미만	1,200

바.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Goil	MGO	830	'25.8.31

정승화 파푸아뉴기니 명예해양수산물관



정승화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PNG 수산업 구조적 문제

- PNG 수산청은 2020년부터 유지한 해삼 금어기를 10월부터 해제하고 채취, 가공 및 수출을 허용한다고 8월 발표하였다.



- 공고 이후 현재까지 200건 이상의 라이선스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청은 외국인, 특히 중국계의 진출을 공식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 업계에서는 상당수가 중국계 사업자들의 영향 아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수산청은 이번 사업에서 5~6개의 수출 라이선스만 허가하는 개혁안을 마련하였으나, 고위 공무원들의 개입과 부패 정치로 인해 실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5년간의 금어기에도 불법 조업이 지속되어 왔으며, 수산청의 미흡한 단속으로 인해 불법 사업은 주로 중국계 사업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2025년에도 대규모 라이선스 발급이 예상되나, 구체적인 결정 사항은 공고일 기준 3주 전까지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다.

나. 수산업 투자 논의 본격화

- 제2차 파푸아뉴기니(PNG) 경제특구(SEZ) 정상회의가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포트모르즈비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PNG 진출 외국 기업과 중국 대형 수산기업들이 참석하였으며, 경제특구청(SEZA, Special Economy Zones Authority)이 추진하는 수산업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SEZA는 국제무역 투자부 산하 기관으로, 소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수입세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 특히, Madang주 PMIZ 지역은 지난 30년간 수산업 개발을 추진해 왔으나, 토지 및 정부 부처 간 혼선으로 지연되어왔다. 현 정부는 참치 가공 산업에 관심을 집중하며 FCL 등 수산청 산하 기업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국내의 투자자 유치를 위한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산청과 국제무역 투자부가 상호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이외에도 East New Britain주 Rabaul과 제2의 도시 Lae 지역에서는 남태평양 소국가 조업선을 대상으로 한 참치 가공공장 유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으며, Lae는 현재 참치 가공공장이 가장 많이 운영되는 지역으로 인프라는 잘 발달했으나 부두 협소 문제는 지속되고 있다.

다. 유가 동향

공급	유종	가격(\$/kl)	조사일
TWL Logistics	디젤	763	'25.9.8

〈 게재 순서: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





이빨고기 조림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재료: 이빨고기 140g 1팩, 간장 1큰술, 마른고추 1개, 생강술 1큰술, 마늘 1개, 생강 1쪽, 식용유 1.5큰술
- 조림채소: 당근 2cm 1토막, 표고버섯 1/2개, 대파 1/4대, 피망 1/3개, 양파 1/4개
- 조림장: 생강술 1/2큰술, 간장 1/2큰술, 물 3큰술, 설탕 1작은술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이빨고기를 두 토막 내어 후추를 약간 뿌리고 간장과 생강술에 20분 정도 재운다.
- ② 마늘과 생강은 얇게 슬라이스하고 마른 고추는 송송 썰어 준비한다. 조림 채소는 사방 1cm 크기로 잘라준 후,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 생강, 마른 고추를 넣고 볶아주면서 향을 낸다.
- ③ 향을 낸 기름에 재워두었던 이빨고기(양념은 뺀)를 앞뒤로 노릇하게 굽는다(다 구워졌으면 마늘, 생강, 마른 고추는 덜어내준다.)
- ④ 이빨고기가 노릇하게 익으면 썰은 채소를 이빨고기 주변에 넣고 조림장을 부려준다. 뚜껑을 열고 채소를 알맞게 익히고 조림장이 약간 남도록 졸여낸다.



9월 싱가포르 MGO 가격, 평균 670달러

9월 11일 기준 678달러

9월 11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9.85달러, WTI 가격은 62.37달러, 브렌트유 가격은 66.37달러를 기록하였다.

9월 11일 기준 싱가포르 선박용 경유(MGO) 가격은 톤당 678달러로 8월 11일(657달러) 가격 대비 약 3% 하락하였다.

9월 평균(9.1~9.11) 가격은 670달러로 전월 평균 가격인 662달러 대비 약 1% 상승하였다. 전년 9월 평균보다 6% 상승하였고, 전전년 9월과 비교하면 29% 하락하였다.

2025년 평균(1.2~9.11) 가격은 660달러로 전년(1.2~12.31) 평균 대비 10% 하락하였고, 전전년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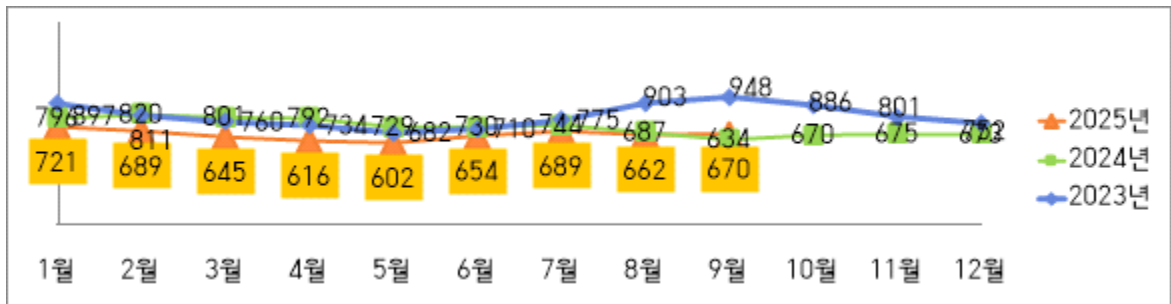
균 대비 18% 하락하였다.

8월 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차질 우려 부각과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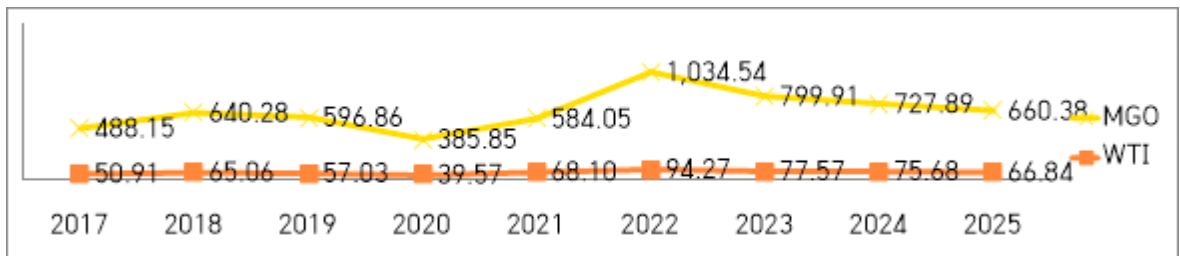
9월 초 OPEC+(OPEC 회원국 및 러시아 등 OPECT 비회원국) 소속 8개국이 일일 13만 7,000배럴의 증산을 발표하면서, 국제 시장의 석유 공급 과잉 우려로 유가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9월 10일경 이스라엘이 중립국인 카타르를 전격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었고, 이 여파로 국제유가가 이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 가까이 급등했다.

〈 연도별 월별 싱가포르 MGO 평균 가격 〉



〈 연도별 MGO, WTI 평균 가격 〉





IATTC, 동부태평양 참치 어업 FAD 금지기 단축 결정 황다랑어 등 다랑어 자원 건강함 확인

지난 9월 초 파나마시티에서 열린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 103차 연례회의에서, IATTC는 2026~2028년 기간 동안 FAD 사용 금지기간을 64일로 단축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는 기존 금지기간보다 8일 짧으며, 매년 과학적 검토를 통해 조정될 수 있다. 한편, 최근 자원평가에서 황다랑어, 가다랑어, 눈다랑어 자원이 건강한 상태로 확인되었다.

금지기간 단축 결정과 함께, IATTC는 참치 자원의 과학적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총 3백만 달러 규모의 다년간 연구 예산을 승인하였다. 주요 연구 과제로는 지역 참치 태깅 프로그램과 통합 항만 샘플링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자원량, 회유, 사망률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어획량 관리에 필수적인 데이터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어미-새끼 돌고래 분리 연구를 위한 120만 달러 공동 투자도 이루어져, 국제 돌고래 보존협정(AIDCP) 하의 예방적 조치가 강화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동부태평양 참치 어업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 보호에도 책임을 다하게 만드는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회의에서는 관리전략평가(MSE) 작업반의 활동도 강조되었다. 에콰도르와 미국 공동 의장이 이끄는 작업반은 장기 어획 관리 전략 개발을 지원하며, IATTC-WCPFC 남방 날개다랑어 공동작업반 등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해 과학적 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일부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퓨 자선재단(Pew Charitable Trusts)은 태평양 참다랑어와 눈다랑어에 대한 과학 기반 장기 관리 전략은 채택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2026년 재논의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번 IATTC의 결정은 참치 어업 관리에서 과학적 근거, 투명성,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또한 데이터 기반 관리와 협력적 접근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NGO와 참치 관련 단체들은 동 연례회의를 앞두고 이하와 같은 입장문을 제출한 바 있다. 연승어선과 소규모 선망어선에서의 100% 옵서버 커버리지가 공통 요구사항으로 제기되었다. 현재 IATTC는 연승어선에 대해 최소 5% 옵서버 커버리지만을 의무로 적용하고 있다.

〈Europeche, GTA의 요구〉

유럽의 주요 어업 대표 기구인 Europeche는 RFMO가 선망어업 금지 기간(IATTC 결의 C-24-01 기준)을 단축하고,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수역에서의 FAD 회수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을 건의하였다. 또한 선망어획에 대한 과학적 추정을 위하여 IATTC의 전통적인 샘플링 프로그램 강화를 요구하였다.

Europeche는 또한 어류 자원량 지수를 추정하는 미래 연구 촉진을 위하여 연승어선 보유 회원국들이 조업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위원회가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uropeche는 “WCPFC가 이미 이를 시행하고 있으며, IATTC도 동일하게 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또한 전재가 항구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형 연승어선과 공해에서 조업하는 모든 규모의 연승어선에 대하여 지역 옵서버 제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하였다.

소매업체와 공급망 기업들로 구성된 독립 단체 세계참치연맹(이하, GTA)은 IATTC가 모든 상업적 참치 어종에 대한 어획 전략 개발 노력을 환영하였다. GTA는 IATTC 과학진이 권고한 대로, 열대 참치 종에 대한 관리전략평가(MSE)를 완료하고 관리 목표와 개정된 기준점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GTA는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다양한 어획 전략·관리 절차를 개발하기 위하여 IATTC와 WCPFC가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연승어선과 소규모 선망어선에 대한 100% 옵서버 커버리지를 요구하였다.

국제수산지속가능성재단(ISSF)은 “IATTC 관할 구역 내 선망어선에 대한 10일 이상의 금어기”를 도입하거나, 혹은 “7일 이상 금어기와 함께 ‘코랄리토(corralito)’라 불리는 금지 구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코랄리토는 일종의 임시 해양보호구역으로, 참치 자원 회복을 위하여 한 달간 금어기를 가진다.

또한 ISSF는 FAD 관리와 관련하여 △FAD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규칙 제정 △원격 비활성화·재활성화 이벤트에 대한 감시 강화 △방치된 FAD에 대한 모니터링 프로그램 구축을 요청하였다. 이 밖에 아직 옵서버가 배치되지 않은 연승어선이나 선망어선에 대한 ‘인적 옵서버(human observer)’ 또는 전자 모니터링 도입을 제안했다.

퓨 자선재단(Pew Charitable Trusts)은 IATTC 자원 관리 절차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며, 눈다랑어에 대한 개념적 관리 목표 채택과 2026년까지 관리 전략평가(MSE)를 완료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태평양 참다랑어 관리 진전의 가속화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회원국들이 더 엄격한 승선·검사 절차를 채택하고, 동부태평양에서의 준수 및 보전 노력을 강화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4개 공급망 기업들은 IATTC가 100% 옵서버 커버리지를 보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타임라인 설정을 요구하였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으로는 타이유니온(Thai Union), Wofco, Aldi, Costco, Asda, Hyvee, Kroger, Mars Petcare 등이 있다.

Birdlife International, Conservation International, The Nature Conservancy 등 다수의 단체들은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관리 절차 채택, 황다랑어 MSE,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에 대한 WCPFC와의 협력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또한 “최신 과학적 권고에 근거한” 바다새 보존 관리 조치 채택을 촉구하였다.

세계자연기금(이하, WWF)은 황다랑어 MSE 전면 검토, 2026년까지 어획 문서화 제도(CDS) 개발·채택, 자원평가 정확도 개선, IUU 어업 위험 축소, 태평양 참다랑어 모니터링 강화를 권고하였다. WWF는 또한 IATTC가 태평양공동체(SPC)와 협력하여 남태평양 날개다랑어의 자원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 단체는 FAD 표식 제도의 개발·도입과 더불어 선단 과잉 문제를 해결할 조치를 요구하였다. WWF 성명은 다음과 같다: “허가 선박의 어구 증가, FAD 사용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기존 노후 선박을 더 효율적인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 등은 어업 압력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열대 참치 자원의 건강을 보장하고, 참치 어업에 의존하는 산업의 미래를 위하여 선박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 출처: Atuna, 2025년 8월 25일자, UndercurrentNews, 2025년 9월 9일자



WCPO 선망어업, 2024년에 경제 여건 호조

어획물 전체 가치 34억 달러 추산

중서부태평양(이하, WCPO) 선망어업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은 2024년에 호조를 보였다고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이하, WCPFC)에 제출된 최신 자료에서 나타났다. 2024년 선망어업 참치 어획물의 추정 가치는 34억 달러였다. 이 정보는 「WCPO 참치어업 개요, 2024년 경제 여건 포함」 보고서에서 공개되었다.

WCPFC 협약 수역의 주요 참치어업 지수는 수년간 과학위원회에 제출되어 왔다. 이 지수들은 지난 20년(2005~2024년) 동안의 상대적 어류 가격, 어업 비용(입어료 등 지불 제외), 단위 노력당 어획량(CPUE) 등의 요인을 기반으로 경제 여건을 평가한다.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데이터는 단일 지수 값으로 결합되며, 직전 20년 평균값(100으로 설정)에 상대적으로 표현된다.

종합 지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여건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측정한다. 100보다 낮은 값은 평균 이하의 상황을 나타내고, 100보다 높은 값은 상대적으로 호조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경제 상황 호조〉

경제 상황 호조는 어업 전반의 이익 창출 가능성을 시사한다. 2024년 지수는 111로, 20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이다. 어가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대신 어획량이 증가하고 연료비용이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2012년 이후 열대 선망어업의 경제 여건 지수는 2014년, 2021년, 2022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장기 평균을 웃돌았다. 최근 몇 년 동안 개별 지수 구

성 요소들의 기여도는 크게 달라졌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높은 지수 값은 대체로 많은 어획량이 주요 원인이었다.

2022년에는 20년 평균 미만으로 하락하였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해상 경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2023년에는 어류 가격 상승, 전년도 대비 연료비 하락, 그리고 지속적인 어획 호조에 힘입어 지수가 반등하였다.

〈원료 가격 하락, 어획량 증가〉

가격, 비용, 단위 노력당 어획량(이하, CPUE)은 모두 WCPO 선망어업의 경제적 건전성에 기여한다.

지수의 어류 가격 구성 요소는 태국의 냉동 가다랑어와 황다랑어 수입의 연간 달러 가격 가중 평균을 의미한다. 2024년 가격 지수는 냉동 가다랑어와 황다랑어의 낮은 어가로 인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비용 지수는 싱가포르 해상 경유 가격 변화를 비롯해 일부 비연료 비용(공개되지 않음)에 기반한다. 지난해 지수가 하락하면서 선망어선단의 비용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2024년 CPUE 지수는 약 140포인트로,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2024년 WCPO 선망선단 어획량이 214만 8,963톤이며, 이 가운데 가다랑어 생산량이 178만 549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5대 주요 선단의 가다랑어 CPUE는 2023년 수준을 상회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8월 27일자



EPO 선단, 2024년에 대형 개체 주로 어획

IATTC 연례회의서 발표

동부태평양(이하, EPO) 선망어선들은 2024년에 더 큰 크기의 가다랑어와 눈다랑어를 포획했으며, 황다랑어의 평균 중량도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9월 초 시점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이하, IATTC) 연례회의가 진행 중이며, FAD 관리와 관련한 자원 평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2024년 EPO 다랑어 어업」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열대참치(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자원 상태는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어종별 크기와 길이가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길이-빈도 샘플은 에콰도르와 멕시코의 하역항에서 IATTC 직원들이 EPO 선단 어획물로부터 채집하였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몇 년간 선망 및 대낚시(pole-and-line) 어선에 의하여 어획된 가다랑어를 보여준다. 2019년 이후 선박들은 평균 2kg 크기의 가다랑어를 어획하였다.

2024년 가다랑어의 크기 구성은 이전과 달랐다. 대부분은 40~60cm 구간에 속했으며 평균 중량은 2.5kg으로, 소형 개체(1.9kg)가 주로 어획된 2023년보다 커졌다. 대부분은 FAD에서 잡혔으며, 동부와 북부 EPO 수역에서 60~70cm 길이, 평균 3.7kg의 대형 가다랑어가 어획되었다.

〈돌고래 연계 조업에서 황다랑어 대형 개체 어획 추세〉

최근 몇 년간 선망 및 연승어선에 의해 잡힌 황다랑어의 크기 구성 추정치는 아래 그래프에 제시되어 있다. 2024년 황다랑어 총 어획량은 약 29만 4,000톤에 달했다. 대부분은 연중 돌고래 투망 어장에서

잡혔으며, 소량은 2024년 1~3분기 동안 FAD 투망에서 잡혔다.

2024년 황다랑어 평균 중량은 9.8kg으로 2023년보다 0.1kg 증가했다. 과거에 비해 크기 분포가 중간 범위로 이동하는 등 소형과 대형 개체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는 100~140cm 범위에 속하였으며, 이 대형 개체들은 연중 북부, 남부, 연안의 돌고래 연계 조업에서 주로 어획되었다. 반면, 80cm 미만의 소형 황다랑어는 FAD에서 주로 어획되었다.

지난 5년간 황다랑어 개체별 평균 중량 최고치는 2020년 10.5kg였고, 최저치는 2022년의 6.5kg였다. IATTC 과학연구부서장 알렉상드르 아이레스 다실바는 2022년 황다랑어 개체별 평균 중량 하락이 자원 내 모집군(recruitment) 변화와 환경 조건 변화 등 여러 요인 때문일 수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다.

〈대형 눈다랑어 어획〉

지난해 EPO 선망선단은 3만 4,000톤의 눈다랑어를 어획하였다. 개체별 평균 중량은 5.5kg으로, 2023년 평균 대비 30% 증가하였다. 어획된 개체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40~80cm 범위였으나, 2019~2023년과 비교했을 때 80cm 이상의 대형 눈다랑어는 더 적었다. 소형 눈다랑어(80cm 미만)의 대부분은 연중 2분기와 4분기 북부 및 남부 FAD 어업에서 어획되었다.

2019년~2024년 동안 개체별 평균 중량이 가장 가벼웠던 해는 2022년(4kg), 가장 무거웠던 해는 2024년(5.5kg)이었다.

* 출처: Atuna, 2025년 9월 1일자



키리바시 2024년 WCPO 어획량, 지난 5년간 최대치 WCPFC 보고서에서 발표

키리바시 국적의 선망선단의 2024년 중서부태평양 (이하, WCPO) 어획량은 가다랑어 어획 호조와 선박 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 대비 증가하였다.

키리바시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2024년 선망어업의 어획량, 주요 어획종, 선박 수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선망어업은 키리바시 경제에 필수적이며, 선박일수 제도(VDS)를 통하여 매년 정부 수입의 대부분을 제공한다. 키리바시에 국적을 둔 선망어선들은 용선 계약이나 합작투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중국이 이러한 형태로 키리바시와 협력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에도 가다랑어가 주요 어획종이며, 주로 해외 통조림 가공 공장으로 향하였다. 연간 총 어획량은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2024년에 최근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키리바시 국적 선망선단의 2024년 총 어획량은 24만 3,431톤이다. Atuna의 올해 초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참치 통조림 수출국인 태국의 가공업체들은 키리바시 선망선단으로부터 냉동 원어 4만 5,667톤을 구매하였다.

2020년에는 가다랑어 어획이 두드러졌으나, 이듬해 크게 줄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어획량이 회

복세를 보이며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4년 어획량은 전년도 대비 약 8,400톤 증가한 총 22만 4,274톤을 기록하였다.

황다랑어 어획량은 2020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4% 감소하였다. 선망어업 혼획 어종인 눈다랑어 어획량도 2024년에 감소하였다. 눈다랑어의 2024년 어획량은 총 1,628톤으로, 전년 대비 194톤 감소하였다. 참치 대부분은 키리바시, 나우루, 솔로몬제도, 투발루의 EEZ에서 어획되었다.

Kiribati Purse Seine Catch (In M/T)					
	2020	2021	2022	2023	2024
Skipjack	161,043	145,429	156,810	215,848	224,274
Yellowfin	28,316	27,200	22,931	20,566	17,529
Bigeye	11,017	8,532	7,935	1,822	1,628
Total	200,376	181,161	187,676	238,236	243,431

Source: WCPFC Powered By Atuna Analyst

2024년 WCPO 수역에서 조업한 키리바시 국적 선망어선은 33척으로, 전년도보다 4척 늘었다. 이 가운데 1,001~1,500톤(총톤수) 선박이 10척, 1,500톤 이상 선박이 23척이었다. 선박 수는 2020년 이후 증가세를 보여왔으며, 2024년에 지난 5년을 통틀어 가장 많은 척수를 기록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9월 1일자

Table 4: Kiribati purse seine vessels, by size category, active in the WCPFC Convention Area, over 2020-2024

Gear	Size Category (GRT)	2020	2021	2022	2023	2024
Purse seine	0 - 500	0	0	0	0	0
	501 - 1000	0	0	0	0	0
	1001 - 1500	11	10	7	11	10
	1500+	14	16	17	19	23



미크로네시아 선망선단 2024년 어획량 증가 약 19만 톤 어획

미크로네시아 국적 선망선단의 2024년 다랑어류 어획량이 전년 대비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선박 수는 감소하였으나, 중서부태평양에서의 어획량 호조가 증가세를 견인하였다.

지난 7월 미크로네시아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이하, WCPFC)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하여 자국 선망선단과 외국 국적 선망선단의 자국 EEZ 내 조업 현황을 공개하였다. 주 어종은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였다. 미크로네시아는 태국에 냉동 참치 원어를 대량 수출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이다.

2024년 미크로네시아 국적 선단의 다랑어류 총 어획량은 혼획 포함 19만 6,046톤이며, 이 중 선망선단 어획량은 18만 8,458톤이었다. 어종별로는 가다랑어가 16만 8,414톤으로 가장 많았고, 황다랑어 1만 6,980톤, 눈다랑어 3,064톤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가다랑어와 눈다랑어 어획량은 각각 41%, 206% 증가하였으나, 황다랑어는 9,000톤 이상 감소하였다. 혼획 어종으로는 새치류 등이 있다.

작년 미크로네시아 국적 선망선 수는 2023년 27척에서 26척으로 감소하였다. 대부분이 1,500톤급 이상의 대형선이었으며, 1,000~1,500톤급은 10척이었다. 최근 5년간 선박 수 변동 폭은 13척에 불과하였으며, 2022년이 25척으로 가장 적었다. 어획 구역은 주로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솔로몬제도, 키리바시, 파푸아뉴기니 EEZ와 공해였다.

2024년 미크로네시아 EEZ에서 조업 허가를 받은 외국 어선은 총 155척으로, 선망선 94척, 연승선 43척, 대낚시(pole-and-line) 20척이었다. 선망선 어획량은 27만 9,547톤으로, 가다랑어(94%), 황다랑어(5%), 눈다랑어(1%) 순이었다. 일본 선망선단이 가장 많은 어획을 기록하였으며, 대만, 한국, 중국, 필리핀이 뒤를 이었다. 또한 키리바시, 마셜제도, 나우루,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투발루, 바누아투 등 태평양 도서국 선망선도 미크로네시아 수역에서 조업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8월 5일자

Micronesia Purse Seiner Catches (In M/T)					
	2020	2021	2022	2023	2024
Skipjack	137,960	111,591	138,965	119,108	168,414
Yellowfin	32,100	31,102	20,827	26,007	16,980
Bigeye	7,845	7,626	2,263	1,001	3,064
Total	177,905	150,319	162,055	146,116	188,458

Source: WCPFC

Powered By Atuna Analyst



에콰도르 선단, 상반기 EPO 어획량 소폭 증가 가다랑어 어획량은 감소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에콰도르 선단의 동부태평양 (EP) 어획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주요 어종인 가다랑어는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에콰도르 내 통조림 공장으로서의 공급량이 줄었으며, 이러한 상황은 향후 몇 달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상반기, 에콰도르 선망선은 전년도 대비 4% 증가한 24만 1,594톤의 참치를 어획하였다. 같은 기간 EPO에서 전 국적 선단의 총 어획량은 55만 4,471톤이다. 이번 상반기 어획량은 최근 5년간의 상반기 어획량 중 중 최고치이다. 에콰도르 선망선단의 상반기 어획량은 2021년 약 16만 톤, 2022년 14만 톤을 기록한 이후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황다랑어 어획량, 두 배 이상 기록〉

역사적으로 에콰도르 국적 선망선은 EPO 가다랑어 어획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25년 상반기에는 가다랑어 어획량이 16만 9,080톤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전반기 상반기 어획량과 비교하면 14%(2만 8,184톤) 감소한 수치이다.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대형 선단 어획량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가다랑어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감소는 EU에 무관세로 참치 통조림을 수출하는 에콰도르 통조림 업계에 우려를 낳고 있다. 가다랑어 공급량 감소 및 7월 29일~10월 9일동안 진행되는 금어기(베다, veda)로 인하여 향후 몇 달

간 통조림 생산에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다만 가다랑어 어획량의 경우 “2024년은 2022년, 2023년의 엘니뇨로 인하여 이례적으로 많은 어획을 기록한 시기이기 때문에, 2025년의 가다랑어 어획량을 ‘급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황다랑어 및 기타 어종 어획〉

한편, 에콰도르 선망선단의 상반기 황다랑어 어획량은 5만 4,598톤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만 23톤 증가한 수치이다. EPO에서의 황다랑어 어획 호조는 에콰도르가 EU에 수출하는 냉동 참치 로인(스테이크용) 사업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인도양 등에서 조업하는 EU 참치 선사들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에콰도르 선망선단의 올해 상반기 눈다랑어 어획량 또한 전년도 대비 65%나 증가한 1만 6,597톤을 기록하였다. 눈다랑어는 주로 가다랑어나 황다랑어 어장에서 집어장치(FAD) 어획 시 혼획된다. 반면, 참다랑어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1,319톤을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눈다랑어는 신선 또는 냉동 참치 시장으로, 참다랑어는 주로 초밥과 횡감용으로 수출된다.

* 출처: Atuna, 2025년 8월 25일자



대만산 냉동 눈다랑어, 7월 가격 최근 3년간 최고치 kg당 783엔 기록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7월 다랑어류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 품목 수입량 652톤(전년도 동월 대비 소폭 증가), 수입액 10억 7,100만 엔(5% 증가), 냉동 품목 수입량 1만 5,754톤(11% 감소), 수입액 160억 2,000만 엔(5% 감소), 가공품은 수입량 4,569톤(9% 증가), 수입액 37억 2,000만 엔(소폭 감소)이었다.

냉동 눈다랑어 GG(아가미, 내장 제거) 제품 수입량은 4,451톤(26% 감소)으로, 6월의 2,954톤에서 다시 회복하였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만산도 6월 808톤까지 감소했다가 7월에는 1,486톤으로 증가하였으나, 작년 같은 달에 비하면 54% 감소하였다.

1~7월 누계 물량을 비교하면, 원산지 상위 3개국인 대만산 1만 6,002톤(6% 증가), 중국산 6,566톤(46% 증가), 세이셸산 5,121톤(32% 증가)으로 작년 동기 실적 대비 증가하였다. 올해는 초저온 냉동 창고의 수용 능력이 개선되어, 하역을 기다리는 해상 대기 기간이 짧아졌다. 반입이 앞당겨진 것으로 인하여 “6~7월 물량은 단지 통계상 적어 보이는 것”으로도 해석하는 의견도 있으나, 향후 공급 감소를 우려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이유로, 대만 어선이 인도양에서 어획하는 냉동 대형 눈다랑어(40kg 이상)의 일선매입(一船買い, 특정 선박의 선주와 직접 협상하여 해당 선박의

어획물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하는 방식) 가격은 7월 중순 900엔에서 8월 950엔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7월 대만산 눈다랑어의 kg당 평균 수입 가격은 783엔(10% 상승)으로, 작년 7월만이 아니라 2023년 7월의 가격도 넘어서며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7월에는 냉동 날개다랑어가 증가하였다. 대만산이 2,283톤으로 전체 물량의 약 90%를 차지하였다. 호주 서부 프리맨틀 근해의 올해 어획량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에 비하면 반입 속도는 느린 편이다. 관계자들은 그 원인이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의 가격 상승세로 인하여 “가격 재협상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였다.

신선 품목 중 호주산 남방참다랑어 수입량은 257톤(22% 감소)이었다. 매년 7월은 물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획량이 많았던 전년에 비하면 감소하였으나 순조로운 속도로 입하가 계속되었다. 평균 단가는 1,184엔(8% 하락)으로, 6월의 1,252엔보다 더 떨어졌다. 도요스 시장 측은 이달 초순 “20kg대의 작은 개체가 많았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멕시코산 양식 참다랑어는 전년 동월 대비 3.5배인 136톤이었다. 여전히 100톤이 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9월 4일자



日 2025년 7월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발표

한국산 눈다랑어 440톤 수입

〈 2025년 7월 일본 냉동 다랑어류 수입 통계 〉

(단위: 톤)

어종	국가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날개 다랑 어	한국	43	87	119	32	122	221	47
	대만	127	38	513	685	504	828	2,283
	바누아투	-	11	521	174	87	19	-
	기타	287	57	378	362	700	666	264
	소계	458	194	1,531	1,253	1,414	1,735	2,594
황다 랑어	한국	131	657	667	318	189	909	244
	중국	259	420	370	461	692	314	190
	대만	767	1,074	1,481	834	1,200	557	976
	필리핀	-	-	-	-	-	-	-
	인니	-	-	-	-	24	11	8
	미국	-	-	-	-	-	-	-
	바누아투	9	128	24	77	255	83	75
	피지	-	-	-	-	-	-	-
	카야시	-	-	-	-	-	-	-
	마셜제도	-	-	-	-	25	50	24
	기타	1,128	674	1,484	467	696	466	693
소계	2,296	2,953	4,027	2,157	3,080	2,390	2,210	
눈다 랑어	한국	116	131	91	236	135	674	440
	중국	671	750	845	1,202	649	796	1,653
	대만	1,502	3,146	3,164	2,958	2,938	808	1,486
	필리핀	-	-	-	-	-	-	-
	인니	-	-	-	-	-	-	-
	세이셸	1,253	632	1,339	150	643	305	799
	바누아투	71	432	118	55	744	282	-
	기타	138	234	274	212	204	88	73
	소계	3,750	5,325	5,831	4,812	5,313	2,954	4,451
남방 참다 랑어	한국	-	-	-	280	-	-	-
	대만	122	155	332	25	-	-	53
	호주	-	-	-	692	39	-	158
	소계	122	155	332	997	39	-	211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9월 4일자



美, EPO 참치 어업 지속가능성 관리 주도

과학기반 관리 및 국제 협력 강화

미국은 최근 열린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 연례회의에서 동부태평양(EPO) 참치 어업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를 위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국 대표단은 NOAA 국제수산 담당 수석차관보 앤드루 롤러(Andrew Lawler)의 지휘 아래 보전 조치 확대, 모니터링 프로그램 강화, 미국 어업인들의 기회 확대를 우선 과제로 추진하였다.

IATTC는 21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도로 회유성 어종의 과학적 관리와 합의 기반 의사 결정을 통해 자원 관리 방안을 수립한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은 열대 참치 관리, 집어장치(FAD) 회수, 규제 간소화 등 핵심 분야에서 성과를 이끌어내며 환경 보전과 어업 산업의 균형을 강조했다.

미국은 눈다랑어, 황다랑어, 가다랑어 관리 논의를 주도하며 지역 참치 태깅(Tagging) 프로그램에 180만 달러의 기금을 확보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참치 분포와 자원 건강성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여 지속 가능한 어획을 뒷받침한다.

또한 미국은 통합 항만 샘플링 프로그램 도입을 주도해 기존 조사와 강화된 모니터링을 통합, 정확한 자원 상태 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과학적으로 자원이 건전하다고 확인된 경우 선망어선의 조업 휴업일을 줄이는 조치도 관철시켜, 지속가능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미국 어업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였다.

집어장치(FAD)는 효율적 어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방치될 경우 해양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다. 미국 참치선주협회는 다국적 업계 연합을 이끌어 FAD 회수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IATTC는 생분해성 소재 사용 촉진, 추적 장치 부착, 회수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해양 환경 보호와 어업 공동체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규제 부담 완화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와 공동 남태평양 알바코어 작업반 신설 ▲미흑점상어(Silky shark) 보호 조치 연장 ▲만새기(Dorado) 자원평가 작업반 설립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는 미국 어업인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글로벌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조치다.

앤드루 롤러는 “이번 IATTC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은 우리 바다를 보호하면서 어업인을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어업 정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며 “이번 조치는 경계를 강화하고, 보전을 증진하며, 미국을 책임 있는 수산 관리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게 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미국 해양대기청, 2025년 9월 9일자



美 MMPA 관련 규제 강화, 참치 무역에 미칠 영향은?

다수 참치 공급국, 비교 가능성 판정에서 제외

내년부터, 미국 해양대기청(이하, NOAA) 수산청의 외국 수산업 목록(Foreign Fisheries List)에 등재된 어업 중 '비교 가능성 판정(comparability finding)'을 받지 못한 수산물은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게 된다. NOAA는 해양포유류보호법(이하, MMPA) 수입 규정에 따라 각국의 수산업에 대한 비교 가능성 판정을 발표하였다.

미국 어업은 이미 엄격한 혼획 완화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외국 어업도 유사한 해양포유류 보호 기준을 충족해야만 미국과 교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판정이 미국의 참치 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NOAA 수산청은 89개국의 모든 어업에 대해 비교 가능성 판정 전면 승인을, 34개국의 어업에 대해서는 부분적 승인을 발표하였다.

미국에 주요 참치를 공급하는 에콰도르와 인도네시아의 유자망(driftnet), 자망(gillnet), 걸림망(entangling net) 어획 참치 제품은 비교 가능성 판정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베트남 선단의 FAO 61, 71 수역 및 자국 EEZ에서의 유자망, 자망, 걸림망 어획 제품 및 표층 선망 어획 제품도 마찬가지로 승인받지 못하였다.

필리핀의 중서부태평양(WCPO, FAO 71), 대서양(AO, FAO 31·34), 인도양(IO, FAO 51·57)에서의 연승 참치 어업 역시 비교 가능성 판정에서 제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매 및 외식 산업을 겨냥한 필리핀의 대미 참치 통조림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중국 선박이 자국 EEZ, FAO 61 및 중국해에서

들망(lift net)으로 어획한 보니토(Bonito) 제품도 판정이 거부되었다.

12개국(베냉, 그레나다, 기니, 아이티, 이란, 나미비아, 뉴칼레도니아, 러시아, 세인트루시아, 감비아, 토고, 베네수엘라)의 모든 어업에 대한 비교 가능성 판정은 기각되었다. 이 가운데 상업적 참치 어업을 보유한 국가는 감비아, 기니, 이란이지만, 현재 미국에 수출하지는 않는다.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비교 가능성 판정을 거부당한 어업의 수산물은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해, NOAA 수산청과 미 관세청은 해당 어업에서 유래할 수 있는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HTS 코드(첫 6자리는 국제 HS 코드와 동일하고, 뒤 4자리는 미국 고유 관세율 정보를 표기하는 코드) 목록을 마련하였다. 이 목록은 금지된 어업을 국가별로 HTS 코드, FAO 종 코드, 어구 유형별로 표시한다.

금지 국가의 어업에서 나온 제품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는 당국의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비교 가능성 판정(Comparability Finding)이란?〉

비교 가능성 판정이란 특정 국가의 수출 어업 또는 면제 어업이 해양포유류 혼획 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NOAA가 결정하는 절차이다. 해양포유류 혼획 위험이 없거나 낮은 경우는 면제 어업으로, 위험이 높거나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는 수출 어업으로 분류된다.

비교 가능성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가 다



음을 입증해야 한다.

1. 상업적 어업 활동 중 해양포유류를 의도적으로 살상하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히는 행위를 금지할 것
 - 혹은 2. 미국으로 수출되는 수산물이 이러한 의도적 살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유발하는 과정의 결과물이 아님을 신뢰성 있게 입증할 절차를 보유할 것
- 또한 수출 어업은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폐사 및 심각한 부상을 관리하는 제도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규제 프로그램과 유사한 효과를 가져야 한다.

각국은 4년마다 비교 가능성 판정을 재신청해야 수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전에 판정을 거부당한 어업이라도, 새로운 자료나 업데이트된 정보가 있다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재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7월 미국 의회에서는 MMPA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50개 이상의 환경단체는 이 개정안이 해양포유류 보호를 치명적으로 약화시키고 지난 50년간의 보전 성과를 되돌릴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9월 5일자

타이유니온, 저관세 국가로 참치 생산 이전 검토 美 관세 대응책

타이유니온 그룹은 8월 투자자 및 분석가들을 대상으로 반기 실적과 미국의 수입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참치 생산 기지 이전 전략을 발표하였다. 타이유니온은 미국 내 가공 시설 확장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상온 식품에 대해 31.5%의 미국 수입 관세 대상이다. 이는 참치 통조림에 대한 12.5%의 세금 외에 19%의 상호 관세가 추가된 것이다. 이로 인해 타이유니온은 참치 생산 기지의 위치를 재고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타이유니온은 자신들이 저관세 국가에 있는 자사 시설로부터 조달을 추진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가나에 있는 파이오니어 식품 통조림(Pioneer Food Cannery) 공장의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으며, 미국 시장으로 향하는 물량을 태국에서 가나와 세이셸 공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 가나의 총 관세는 매우 경쟁력 있는 수준인 15%이며, 세이셸은 22.5%이기에 타이유니온은 이를 대책으로 검토 중이다.

또 다른 해결책은 기름 처리한 통조림 및 파우치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참치 자숙 로인을 미국에서 가공하는 생산 능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종 제품에는 (국가별 상호 관세 외에) 35%의 수입세가 부과되는데, 자숙 로인에 대한 수입세는 톤당 11달러로 훨씬 낮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이익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 조지아주 라이언스에 위치한 타이유니온의 자회사 ‘치킨 오브 더 씨’ 참치 가공 시설에서 염수 처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타이유니온은 신규 기계 도입을 통한 공장 생산 능력 확장과 비용 절감을 위한 자동화 평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시장은 타이유니온의 참치 통조림 및 파우치 제품의 주요 구매국이며, 성장하는 애완동물 식품 시장이자, 냉동 수산물의 견고한 매출을 창출하는 국가이다. 미국은 타이유니온 그룹 전체 매출의 38%를 차지한다.

* 출처: Atuna, 2025년 9월 9일자



美 수입업체, 참치 관련 관세 2억 달러 이상 추정

소비자 가격 전가로 미국 시장 가격 상승 우려

트럼프 행정부는 8월 초 관세 조치를 시행하면서 참치 생산국들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일부 국가는 4월에 발표된 초기 세율에서 감면을 받았지만, 이번 추가 관세는 미국과의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워싱턴 고위 관계자들은 향후 수십 년간 막대한 세수가 예상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제학자들은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참치 전문 미디어 Atuna는 미국의 참치 통조림, 파우치, 그리고 자숙 로인 수입 현황을 분석하며, 이번 관세가 미국 재정에 얼마나 기여할지 추정하였다. 중요한 점은, 이 추가 비용은 공급국이 아니라 미국 내 브랜드, 소매업체, 가공업체들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하의 수치는 추정치이며, 장기적으로 관세가 미국 수입업자의 구매 형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한다. 8월 7일 관세 발효 전, 미국 수입업자들은 참치 통조림과 파우치 수입을 늘렸지만, 자숙 로인 수입은 안정세를 유지하였다. 태국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 고객으로부터의 주문은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정은 2024년 제품 가치와 수입 물량을 기반으로 산출되었다. 전체적으로 미국의 이번 관세

(기존 평균세율 + 상호 관세)로 인하여, 참치 제품에서 약 2억 7,563만 달러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미국의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총 13만 4,514톤이었다. 계산 과정에서 수입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관세는 '브라인 통조림 참치(염수 처리)' 기준 세율 12.5%와 원산지별 상호 관세를 반영하여 산출되었다.

여기서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다. 첫째로 참치 통조림은 단일 관세쿼터(single duty quota)로 수입될 수 있는데, 이 경우 6%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가별 쿼터 물량이 불분명하다.

둘째로, 미국은 기름 처리한 참치 통조림을 거의 수입하지 않으며, 수입 시 3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미국 내 참치 업체들이 이 제품을 주로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이다.

2024년, 미국의 태국산 참치 통조림 수입량은 7만 6,789톤이며, 수입 단가는 톤당 4,348달러이다. 여기에 31.5%의 세율이 적용되면, 톤당 약 1,369.62달러의 세금이 부과된다. 전체 물량에 이를 곱하면, 미국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할 관세는 총 1억 517만 달러에 달한다.

멕시코는 수입 상위 10개국에 포함되지만, 멕시코산 참치 통조림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MCA) 덕분에 관세가 면제된다. 다른 주요 원산지별 관세액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참치 통조림 관세만으로 약 1억 7,980만 달러가 징수될 전망이다. 이는 모두 수입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결국 이 비용은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참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파우치 제품의 경우, 2024년 미국 브랜드와 소매업체의 파우치 수입량은 총 5만 2,622톤이며,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5,321달러이다. 이 중 2만 2,662톤이 태국에서 수입된 물량이었다. 주요 공급국으로부터 수입된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는 총 약 7,687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기름에 담긴 파우치 제품’은 거의 수입되지 않

며, 수입 시 35% 세율이 적용된다. 단일 관세 쿼터에는 6%가 적용되고, 연간 쿼터를 초과하면 기름이 아닌 파우치 참치 제품에는 1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자숙 로인의 경우, 작년 미국 수입업체는 총 4만 3,031톤을 톤당 평균 5,221달러에 수입하였다. 이 제품은 보통 벌크로 냉동되어 수입되며, 개별 포장은 6.8kg 이상이다. 이 수입품은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톤당 0.11달러의 기본 관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상호 관세는 물량이 아니라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계산이 복잡하다. 미국의 주요 공급국은 태국(1만 4,655톤)과 베트남(1만 1,031톤)이었으며, 전체 관세 수입은 약 3,896만 달러로 추정된다.

* 출처: Atuna, 2025년 8월 22일자

Canned Tuna Imports					
Top 10 Suppliers	Tax	Reciprocal tariffs	Total Taxes	Amount (US\$)	
Thailand	12.5	19	31.5	105,171,750	
*Mexico	0	25	25	0	
Vietnam	12.5	20	32.5	25,434,264	
Indonesia	12.5	19	31.5	9,812,647	
Ecuador	12.5	15	27.5	1,653,711	
Costa Rica	12.5	15	27.5	5,443,582	
Philippines	12.5	19	31.5	5,499,697	
Peru	12.5	10	22.5	4,493,502	
Spain	12.5	20	32.5	2,003,920	
Colombia	12.5	10	22.5	285,650	
				159,798,723	

Source: NOAA

Powered by Atuna Analyst

(미국 상위 10개 참치 통조림 공급국 및 관세율)



美 관세 여파로 상반기 아시아산 통조림 수입량 증가 최근 5년간 상반기 수입량 최고치 기록

올해 1~6월 미국의 아시아산 참치 통조림 무역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수입량은 최근 5년 사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수입 단가는 소폭 하락하였다. 주요 공급국인 태국산의 2025년 상반기 수입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25%나 증가하였다.

미국의 올해 상반기 동안 아시아산 통조림 수입량은 6만 2,896톤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1%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통조림 수입량은 지난 5년간의 상반기 수입량을 통틀어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아시아산 통조림의 비중은 미국의 상반기 전체 통조림 수입량인 8만 1,629톤의 77%를 차지하였다. 아시아산 통조림의 평균 수입 단가는 톤당 4,291달러로, 전년 대비 2% 하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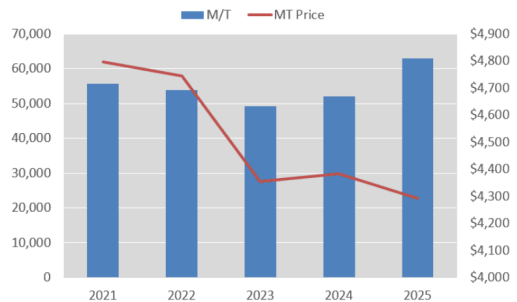
미국의 태국산 통조림 상반기 수입량은 4만 5,653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5% 증가하였다.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4,372달러로 2% 소폭 상승하였다. 1분기에는 2만 4,000톤, 2분기에는 2만 1,636톤이 수입되었다. 미국 내에서 태국산 참치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우려가 확산되면서, 수입업자들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태국산에 부과되는 실제 관세율은 19%

로 낮춰졌다고 8월 7일 발표되었다.

베트남산 수입량은 전년도 대비 18% 증가한 1만 831톤이며, 이 중 1분기 수입량은 5,635톤, 2분기는 약 5,200톤이었다. 평균 단가는 톤당 4,298달러였다. 인도네시아산 수입량은 8% 증가한 3,775톤이며, 평균 가격은 톤당 3,196달러로 아시아 주요 수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기록하였다.

필리핀과 한국산 수입량은 다소 감소하였으나, 한국산 참치 통조림의 수입 단가는 톤당 6,817달러라는 고가를 기록하였다.

ASIA: Average Export Value Of 1 M/T Of Canned Tuna To USA H1



<미국의 2021~2025년도 상반기 참치 통조림 수입량/수입액 그래프>

* 출처: Atuna, 2025년 8월 26일자

Asian Cannerys Made Steadfast Increase In Trade

Asia: Export Of Canned Tuna To USA In M/T, H1
FOB Value Per 1 M/T (USD)

	2023		2024		2025		Change %	
	M/T	FOB	M/T	FOB	M/T	FOB	M/T	FOB
Thailand	36,223	\$4,435	36,473	\$4,283	45,653	\$4,372	25%	2%
Vietnam	6,441	\$4,092	9,150	\$4,779	10,831	\$4,298	18%	-10%
Indonesia	4,178	\$3,808	3,507	\$3,974	3,775	\$3,196	8%	-20%
Philippines	1,967	\$4,296	2,092	\$4,342	1,962	\$4,002	-6%	-8%
South Korea	358	\$7,209	558	\$7,254	506	\$6,817	-9%	-6%
Others	121	\$6,074	260	\$4,225	169	\$2,410	-35%	-43%
Grand Total	49,287	\$4,356	52,040	\$4,383	62,896	\$4,291	21%	-2%

Source: NOAA

Powered by Atuna Analyst



EU, 2025년 상반기에 참치 통조림 수입 급증 전년도 상반기 대비 17% 증가

EU는 올해 상반기 동안 2024년 대비 대폭 증가한 물량의 참치 통조림을 수입하였다. 비(非) EU 가공업체, 특히 에콰도르로부터의 공급이 증가하였다. 2025년 상반기 EU의 참치 통조림 수입 총액은 16억 1,000만 유로로, 전년도의 14억 7천만 유로를 훨씬 웃도는 수치이다.

EU 브랜드, 소매업체, 무역업체들은 참치 통조림 30만 7,045톤을 수입하였다. 전년도 동기 대비 17% 증가한 양이다. 평균 가격은 톤당당 364유로 하락한 5,238유로를 기록하였다.

비EU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대폭 증가하였다. 올해 상반기 동안 비EU 국가산 통조림 수입량은 19만 1,890톤으로, 2024년 상반기 대비 3만 8,220톤 증가하였다. 반면 비EU 국가산 통조림의 평균 수입 가격은 톤당 4,692유로로 5% 하락하였는데, 이러한 가격은 전체 참치 통조림 평균 수입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현저한 차이는 비EU 국가가 비교적 저렴한 어종인 가다랑어 통조림 위주로 EU에 수출하기 때문이다.

에콰도르산의 수입량은 더욱 확대되어 8만 985톤이라는 주목할 만한 물량을 기록하였다.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량은 2024년 상반기 대비 약 2만 4,300톤 더 많은 물량이며, 상반기 기준 사상 최고치이다. 톤당 평균 가격은 약 3% 하락하였다.

다른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도 증가하였다. 타이 유니온 산하 IOT 공장이 위치한 세이셀산은 톤당

6,076유로의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2% 증가한 1만 3,540톤의 수입량을 기록하였다. IOT 공장은쁘띠 나비르(Petit Navire), 마레블루(Mareblu), 존 웨스트 UK(John West UK) 브랜드의 가다랑어 및 황다랑어 제품을 생산한다.

프린스(Princes) 산하 통조림 공장이 위치한 모리셔스산의 수입량도 1만 2,863톤으로 31%나 증가하였다. 파푸아뉴기니산의 수입량은 전년도 상반기 대비 31% 증가한 1만 4,813톤을 기록하며 부진에서 회복하였다.

아비장에 스코디(Scodi)와 페슈 에 프루아(Peche et Froid) 공장이 위치한 코트디부아르산은 16% 감소한 5,601톤이었다. 올해 대서양의 어획량 감소가 생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EU 내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은 6% 증가한 11만 5,156톤이며, 평균 가격은 톤당 6,140유로로 6% 하락하였다. 스페인산 수입량은 2024년 상반기와 거의 비슷한 5만 1,584톤이었으나, 톤당 수입 가격은 6,446유로로 전년도 대비 8% 하락하였다.

수입 허브인 네덜란드로의 수입량은 32% 증가한 2만 2,100톤이었다. 이탈리아산은 주로 고가의 프리미엄 황다랑어 및 브랜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13% 증가한 1만 2,012톤을 기록하였다. 이탈리아산의 수입 가격은 톤당 7,470유로이다.

* 출처: Atuna, 2025년 9월 9일자



美, 베트남산 보니토 통조림 상반기 수입 급증 중국산 수입 하락세

올해 상반기 미국의 보니토 통조림 수입이 크게 늘었다. 특히 스페인이 새롭게 상위 5대 수출국에 진입하였으며, 베트남산 제품은 여전히 시장을 주도하였다. 이번 증가세는 미국 수입업자들이 관세 가능성에 대비하여 서둘러 구매한 물량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23년과 2024년 상반기 부진하였던 보니토 무역은 올해 들어 회복세를 보였다.

미국 식품 서비스 업계 수입업자들은 1~6월 동안 7,113톤의 보니토 통조림을 들여왔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치다. 1분기에는 3,737톤, 2분기에는 3,386톤을 각각 수입하였다. 판매 가격은 톤당 2,900달러로, 지난해와 거의 차이 없는 수준을 유지하며 안정세를 보였다. 보니토 통조림은 보통 1,705g 캔으로 공급되며, 주로 식품서비스 부문에서 사용된다. 이 제품은 보니토뿐 아니라 점다랑어(Euthynnus affinis), 물치다래(Auxis thazard) 등 참치 유사어종이 원료로 사용된다.

〈베트남, 보니토 가공 수출 급성장〉

베트남 가공업체들은 상반기 미국으로 전년도 대비 48% 증가한 5,608톤의 보니토 통조림을 수출하였다. 수출 단가는 톤당 2,815달러였다. 베트남 업체들은 2018년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 시작된 미·중 경제전쟁 이후 중국산 보니토 통조림의 미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큰 수혜를 입었다.

또한 베트남산 제품에 46%의 추가 관세 부과 가

능성이 제기되면서, 미국 수입업자들이 서둘러 물량을 확보한 점도 수입 급증의 배경으로 꼽힌다. 이달 초 미국 정부가 해당 관세를 19%로 인하하면서 부담은 다소 완화되었다.

반면, 중국산 보니토 통조림의 대미 수출은 최근 몇 년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미국의 중국산 보니토 통조림 수입량은 781톤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수입 단가는 톤당 2,962달러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중국산 보니토 제품에 1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였다가 이후 일부 완화하였으나, 최종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스페인·태국·필리핀 동향〉

스페인은 올해 미국 시장 수출을 대폭 확대하며, 2024년 상반기까지 상위 5위권에 있던 인도네시아를 밀어냈다. 스페인의 대미 보니토 통조림 수출량은 194톤이었으며, 수출 단가는 톤당 2,271달러로 가장 저렴하였다.

태국 업체들은 상반기 56톤의 보니토 통조림을 추가로 수출하였으나, 수출 단가는 톤당 3,782달러로 가장 높았다. 한편, 필리핀산 보니토 통조림에 대한 미국 수요는 거의 정체 상태를 보였다.

* 출처: Atuna, 2025년 8월 21일자



프랑스 일부 지자체, 학교 급식에서 참치 통조림 금지 업계 “NGO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것” 반발

프랑스의 8개 도시가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학교 급식에서 참치 통조림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였다. 파리, 그르노블, 릴, 리옹, 몽펠리에, 렌, 베글, 무양사르투 등 8개 도시의 시의회는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공동 성명서로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0월, 비영리단체 블룸과 푸드워치가 발표한 조사 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해당 조사에서는 시험된 참치 통조림의 57%가 다른 수산물에 적용되는 기준치(0.3mg/kg)를 초과하는 수은 수치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여러 권위 있는 기관과 참치 브랜드들에 의해 반박을 받았다. 이들은 “참치 통조림에 적용되는 유럽 기준은 1mg/kg이며, 해당 NGO가 사용한 시험 방식은 현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점, 그리고 “참치에 다량 존재하는 셀레늄이 수은의 독성을 상쇄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과학 연구에서 입증되었다”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각 지자체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부분은 프랑스 정부가 대응에 지나치게 느리다는 것이다. NGO는 보고서에서 수은 수치가 잠재적으로 건강에 유해할 수 있으므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한 시의원은 “이런 경고를 받으면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릴의 부시장도 한 방송 인터뷰에서 “EU 규정은 건강, 특히 아동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프랑스 농업부는 지난 금요일 성명을 통해 참치 섭취를 통한 수은 노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어떠한 ‘실패’도 없었다고 강조하였다. 르몽드

의 보도에 따르면 농업부는 “정부 기관은 법적 최대 기준을 준수하는 참치와 관련해 건강상의 문제를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업계의 자체 모니터링에서도 이런 보고는 없었다”라고 전하였다.

프랑스 통조림식품협회(이하, FIAC)는 “이번 지자체단체들의 결정은 업계 전문가들에게 충격이었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에서도 같은 입장을 확인하였다. FIAC는 “업계는 2024년 10월 NGO 보고서가 발표되자 즉각 대응하였으며, 해당 데이터는 업계가 진행한 검사 결과와 크게 달랐다. 보고서에서 사용된 시험 방식은 현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런 차이가 결과의 불일치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FIAC는 수은 함유량이 1mg/kg의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제품은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다고 보강하였다. 업계는 지난 8년간의 검사 결과를 올해 1월에 공개했는데, 평균 수치가 기준치보다 3배 낮았다. FIAC는 업계가 항상 현행 규정을 준수해 왔으며, 소비자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FIAC는 더불어 어류 섭취의 영양학적 이점을 언급했다. 프랑스 식품안전청(ANSES)은 소비자 건강에 안전한 어류 섭취 지침을 마련해 왔으며, 다양한 어종과 섭취 빈도를 권장하고 있다.

한편, 스페인 참치가공·수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 Anfacoc-Cytma의 로베르토 알론소 사무총장은 “프랑스 공중보건 당국이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놀랍다”라며 비판하였다.

* 출처: Atuna, 2025년 9월 1일자



필리핀 선단, 상반기 어획량 부진

상반기 참치류 어획량 15% 감소

올해 1~6월 필리핀 국적 어선의 참치 및 참치 유사 어종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상반기 상업형 어업 부문 전체 어획량은 44만 7,240톤으로 집계되었다. 이 가운데 참치 및 참치 유사어종 어획량은 22만 4,637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5% 감소하였다. 이들 어종은 전체 상업어획량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가다랑어, 황다랑어, 물치다래(Frigate tuna)는 필리핀 선단이 어획하는 상위 10대 어종에 포함된다. 주요 어획 지역은 방사모로 자치구역, 미마로파, 잠보앙가 반도, 서비사야스, 중부 루손 등이다.

올해 1분기 필리핀 선단의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물치다래 등의 총 어획량은 10만 7,617톤이며, 2분기에는 11만 7,020톤이다.

특히 필리핀은 전 세계적으로도 가다랑어 어획 규

모가 큰 국가지만, 지난해 호황과 달리 올해 상반기 가다랑어 어획량은 12만 4,654톤으로, 전년도 대비 2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황다랑어의 상반기 어획량은 4만 9,503톤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하였다. 반면 눈다랑어 어획량은 7,879톤으로 전년보다 22% 감소하였다.

참치류는 여전히 필리핀 수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물치다래는 상반기 어획량이 5% 감소한 4만 2,601톤이다.

이 밖에도 필리핀 EEZ에는 몽치다래(Bullet Tuna, 학명 Auxis rochei), 백다랑어(Longtail Tuna, 학명 Thunnus tonggol) 등이 풍부하다. 이들 어종은 주로 현지 시장에서 건조, 염장, 훈제 형태로 소비된다.

* 출처: Atuna, 2025년 8월 21일자

필리핀 참치 산업, 협력과 지속가능성 강조

국제 경쟁력 확보 촉구

필리핀 농업부 장관 프란시스코 티우 로렐 주니어는 제25차 전국 참치 대회에서 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협력과 혁신, 지속가능성을 통한 참치 산업 미래 확보를 촉구하였다.

장관은 “우리는 참치에 필리핀의 품질과 신뢰성을 담고 있지만 산업은 지금 기후변화, 국제 지속가능성 규제, 노동 문제, IUU 위협이라는 거친 바다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주요 정책 방향으로 과학 기반 참치 자원

관리, 단속 강화 및 불법어업 대응, 어업인 지원 강화 및 추적성 개선과 어업 종사자 지원 강화를 촉구하였다. “어업 종사자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 해양의 미래를 지키는 수호자이다.”

장관은 어업 종사자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가 선도하지 않으면 뒤쳐질 것이다”라며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였다.

* 출처: 필리핀 농업부, 2025년 9월 3일자



NGO “필리핀 대법원 판결, 참치 수출·어업에 위협”

연안 15km 내 상업 어선 조업 허용 판결 내려

환경 NGO 오세아나(Oceana)는 최근 필리핀 대법원의 판결이 필리핀 참치 수출업자들의 사업을 위협하고 소규모 어업자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난해 8월, 필리핀 대법원(SC)은 상업 어선이 연안으로부터 15km 이내의 지자체 어장(municipal fisheries)에서 참치 및 기타 어종을 조업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 구역은 전통적으로 소규모 어업자에게만 허용되던 구역으로, 참치를 포함한 주요 어종의 산란과 서식에 중요한 해역이다. 이 판결은 참치 수출업자, 전통 어민들, 보전 단체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오세아나는 “참치 구매자들은 MSC, Friend of the Sea와 같은 제3자 친환경 인증을 엄격히 요구한다”라며, 지자체 어장에서 잡힌 어획물은 이러한 인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세아나는 성명에서 “이러한 인증을 확보해야만 수출업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유리한 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강화되는 규제 기준에 맞춰 시장 접근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필리핀 참치가공업협회(PATPI) 대변인도 “상업 어선의 지자체 어장 진입은 자원 관리와 환경 규제 집행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어 “우리의 인증 유지 문제는 단순히 브랜드 평판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인증을 잃으면 주요 시장 접

근성도 잃게 된다”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소규모 어업자들은 더 큰 배들에 의해 생계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상업 어선의 지속적인 지자체 어장 침범으로 인하여 어획량이 줄고 있다고 호소하였다.

한 소규모 어업자 대표는 “요즘은 참치가 점점 덜 잡힌다. 예전에는 한 번 나가면 100kg 정도 잡았는데, 지금은 50kg도 안 되거나 아예 못 잡을 때도 있다”라며 “지자체 어장은 원래도 좁은데, 그마저 상업 어선이 들어오려 한다”라고 말하였다.

수출업자들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수출 시장에서 요구되는 추적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필리핀은 EU와 미국의 주요 참치 수출국이다. 올해 1분기 동안 EU는 필리핀으로부터 통조림 6,709톤, 자숙 로인 4,791톤을 수입했으며, 미국은 통조림 929톤을 수입하였다.

올해 초 필리핀 농업부(DA)와 수산자원국(BFAR)은 대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며, 어업 자원 보호와 소규모 어업자의 생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농업부는 1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이 “국가 수산업과 연안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반드시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대법원은 아직 응답하지 않은 상태다.

* 출처: Atuna, 2025년 8월 22일자



참치, 영국 인기 수산물 지위 유지

소비량 기준 24/25년도 수산물 2위

영국에서 참치는 여전히 소비량 기준 두 번째로 인기 있는 수산물로 자리 잡고 있다. 존 웨스트(John West)와 프린스(Princes)가 대표적인 참치 통조림 브랜드이다.

2024년 6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영국에서 소비된 수산물의 양은 총 41만 225톤이며, 이 중 6만 9,999톤이 상온 보관 참치 제품이었다. 참치 제품의 매출액은 4억 7,960만 파운드(미화 약 6억 4,45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 자료는 영국 해산물 산업을 지원·홍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시피시(Seafish)가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냉장 수산물 부문만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 팬데믹 발발 이후 사재기와 가정 내 식사 증가로 수산물 소매 매출이 일시적으로 약 10% 상승하였다.

이후 냉동·상온 보관 수산물이 소폭 성장세를 보였으며, 물가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위기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은 저렴하고 건강한 대안인 참치 통조림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되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수산물 소비 감소세가 완화되었고, 2024년 초부터는 전체 수산물 소비량이 성장세로 전환됐다. 특히 중반 이후에는 냉장과 상온 제품이 성장세를 주도하였다.

참치는 영국 소매점에서 조리·가공 제품, 즉석 식사, 냉동·냉장 스테이크, 냉동 피자, 스시, 소스·케이크·빵가루 코팅 제품 등 다양한 형태로 판매된다.

참치 소비량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다. 2022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 6만 5,384톤이 판매되었으며, 다음 해 같은 기간에는 판매량이 1,754톤 증가하였고, 매출액도 약 5% 상승하였다.

2025년 6월까지의 1년 동안 역시 매출량과 매출액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 9년간 초밥 부문이 판매액 기준 126% 성장하며 가장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다.

시피시는 영국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생활비 위기가 완화된다면 2025/26년도에도 해산물 소비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좋은 기후, 유로 2025 여성부 촉구대회에서 잉글랜드의 선전 등 긍정적 요인이 소비 심리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2025년 중반 들어 다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은 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불확실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출처: Atuna, 2025년 8월 8일자



대만 FCF, 인도양 날개다랑어 연승어업 MSC 인증 RFMO 선박 목록에는 미포함

해양관리협의회(이하, MSC)는 인도양 연승 날개다랑어 어업과 모리셔스 EEZ 연승 날개다랑어 어업에 인증을 부여하였다.

9월 초 공개된 공인 인증 보고서는 2024년 9월에 평가를 위해 제출되었다. 평가 단위(UoA)는 두 가지로, 인도양 공해(UoA1)와 인도양 공해 및 모리셔스 EEZ(UoA2)였다. 두 평가 단위 모두 평가기관인 SCS 글로벌 서비스(SCS Global Services)가 수행한 평가에서 어획 대상종, 생태계 영향, 관리 체계 등 세 가지 원칙 전부 80점 이상을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FCF는 두 어장에서 연승어업을 운영하며, 일반적으로 수심 70~100m 범위에서 조업이 이루어진다. 어획물은 대만의 동강과 가오슝, 그리고 모리셔스의 포트루이스에 양륙된다.

MSC 인증을 받은 대만 선박들은 2023년에 날개

다랑어 2,600톤을 어획하였다. 그러나 인도양참치 위원회(이하, IOTC) 협약 수역에서 전면적인 조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 선박은 IOTC의 선박 목록에 없는 것일까?

IOTC 준수 매니저 제라르 도밍고는 “대만은 IOTC의 회원국도, 협력적 비가맹 당사국(CPC)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선적된 선박들은 RFMO 명단에 등재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하였다.

도밍고 매니저는 “대만 수산청은 정기적으로 인도양에서 IOTC가 관리하는 어종을 조업하도록 허가받은 선박들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수산청은 해당 선박들이 RFMO가 채택한 모든 보존 및 관리 조치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고 있으며, 모든 의무 보고요건을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Atuna, 2025년 9월 1일자

유럽 참치 통조림 시장, 2035년까지 50억\$ 돌파 전망 건강 트렌드가 시장 확대의 핵심

유럽 통조림 참치 시장이 2025년 약 33억 3천만 달러에서 2035년까지 약 50억 4천만 달러 규모로 연평균 4.2%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소비자는 환경영향과 원산지 투명성에 민감해지면서 MSC 인증과 친환경 포장재 도입이 시장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브랜드는 시간 원산지 추적 시스템과 친환경 파우치 제품 출시 등으로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또한, 프리미엄 제품과 덩어리(chunk) 참치 등 건강과 편의를 고려한 제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

다. 지역별로는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이 시장을 주도하며, 영국은 친환경·재활용 포장, 독일은 유기농 제품 중심의 성장세를 보인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업체의 수출 전략 수립 시 지역별 소비 트렌드와 지속가능성 인증 강화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한다. 투명한 어업 추적가능성(Traceability) 시스템 구축과 제품군 다양화, 지역별 파트너십 확대가 경쟁력 제고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출처: Einpresswire, 2025년 8월 6일자



일렉스오징어, 생산량 증가에도 中 시장 고가 지속 전년도 대비 20% 전후 상승

아르헨티나 원양선단의 어획량 호조에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아르헨티나 일렉스오징어 가격은 전 등급에서 크게 상승하고 있다.

주요 규격인 150~200g급은 올해 32주차 기준 전년도 동기 대비 16.4% 상승했으며, 200~300g급은 24%나 급등하였다. 400~600g 대형도 24% 상승하였고, 600g 이상 초대형 역시 17%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은 아르헨티나 선단이 올해 어획량 20만 6,500톤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연간 어획량(15만 4,600톤)을 이미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아르헨티나 선단은 5월 한 달에만 4만 4,900톤의 어획량을 기록하였는데, 지난해 5월 어획량(2만 1,000톤)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다.

베이징 소재 수산물 무역 플랫폼 ‘화차이(华采, Huacai)’의 한 시장 분석가는 “중국의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시장은 오르기는 쉽지만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진단하였다. 동 분석가는 올해 중국 원양선단의 일렉스오징어 어획량을 17만~18만 톤으로 추산하며 “특별히 많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가격 강세는 올해 3분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저장성 저우산 국제농산물거래센터(이하, ZZIATC)는 8월 이후 일렉스오징어 가격 전망을 “안정적이지만 소폭 상승세”로 분석하였다.

ZZIATC는 시장 소식통을 인용하여 현재 중국의 일렉스오징어 재고가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보도하였다. 한편, 중국 남서대서양에서 조업하는 중국 원양선단이 올해 상반기 동안 양륙한 일렉스오징어의 양은 4만 1,700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1% 감소

하였으며 화차이의 추산치와 비교해도 확연히 부족한 수준이다.

가격 강세와 아르헨티나 선단 어획량 증가에 힘입어 아르헨티나의 오징어 수출은 물량과 금액 기준으로 모두 급증하였다.

UndercurrentNews 데이터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올해 상반기 총 17만 4,330톤, 금액 기준 4억 9,500만 달러 규모의 오징어를 수출하였다. 전년도 동기 대비 수출량은 28%, 수출액은 39%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중국이 10만 8,307톤(2억 9,000만 달러)을 수입하며 최대 수요국으로 자리 잡았다. 중국의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수입은 전년도 대비 물량 기준 159%, 금액 기준 178% 증가하였다.

다른 지역의 공급 차질도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다. 포클랜드제도에서는 자원 감으로 8월 7일부터 48시간 동안 롤리고 오징어 조업이 중단되었다. 중국 원양선단도 7월에 살오징어 2,500톤 양륙에 그쳤으며, 여름철 전체 어획량도 4,000톤을 조금 웃도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ZZIATC는 밝혔다.

또한 페루 정부는 6월 말, 30만 4,209톤의 할당량을 모두 채운 뒤 1~8월 홈볼트오징어 조업을 조기 종료하였으며, 자원 평가와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ZZIATC는 중국 내 가공업체들이 여전히 생산 제약에 직면해 있으며, 성수기 국내 수요까지 맞물려 “가격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8월 14일자



페루산 훔볼트오징어 中 가격 급등

8월 말 훔볼트오징어 조업 재개

8월 25일, 페루 생산부는 훔볼트오징어(아메리카 대왕오징어, jumbo flying squid) 조업을 공식적으로 재개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8만 2,000톤 이상의 추가 쿼터를 승인했다.

이로써 연간 쿼터는 50만 4,000톤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요 글로벌 구매자들에게 공급량 증대로 이어진다.

세계 최대의 페루산 오징어 구매국인 중국에서는 8월 도매가격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9월 초부터 소폭 상승하기 시작했다.

중국의 냉동 수산물 거래 플랫폼 화차이에 따르면, 36주차(9월 1~7일) 1~2kg 크기의 대왕오징어 산지 거래 가격은 톤당 1만 6,400위안(미화 약 2,296 달러)으로 8월 말 대비 톤당 400위안 상승하였다.

페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 세계에 총 18만 3,000톤의 오징어 원어 제품(HS 코드 030743)을 수출하였다. 이 중 대중국 수출량은 10만 4,000톤으로, 페루 전체 오징어 수출량의 57.18%를 차지하였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7월 오징어 및 갑오징어 제품 수입량은 7만 7,500톤으로 전년도 7월 대비 106% 증가하였다. 수입액은 148% 증가한 2억 7,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중국 오징어 수입의 최대 비중을 차지한 페루산의 수입량은 4만 2,200

톤, 수입액은 1억 4700만 달러였다.

중국은 또한 페루의 EEZ 밖에서 조업하는 자국 원양 어업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수산물 무역 허브인 ‘저장 저우산 국제농산물무역센터(이하, ZZIATC)’는 최근 많은 중국 어선들이 페루 EEZ에서 30해리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ZZIATC에 따르면 남동부 태평양에서 조업하는 중국 선단의 2024년 11월 이후 어선 1척당 평균 어획량은 약 1,250톤에 달한다.

페루의 어획 쿼터 증량과 중국 선단의 어획량 개선 등으로 인하여 8월 도매가격에 일부 하방 압력이 있었다. 그러나 ZZIATC는 중국의 전반적인 오징어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 9월에는 도매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였다.

페루 생산부는 지난 6월 30일 전격적으로 오징어 어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불과 6개월 만에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200% 증가한 42만 1,600톤이 어획되면서 기존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당국은 “지속가능성은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며 어업의 조기 중단 배경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금지가 아닌 과학적 조사와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훔볼트 오징어 과학 조사 결과, 자원은 압박을 받았지만, 여전



히 생물학적으로 건전한 수준임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TAC를 50만 4천 톤으로 확대하고, 8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첫 번째 조업 시기(3만 9,984톤), 이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번째 조업 시기(4만 2,432톤)를 허용한다.

IMARPE(페루해양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TAC는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산출된 결과로, 경제성과 생태계 건강 간 균형을 목표로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어업 감시와 규제도 대폭 강화해 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어획물 추적 시

스템을 엄격히 운영할 계획이다.

만약 50만 4천 톤의 어획 목표를 달성하면, 이는 최근 8년간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 된다. 최고치는 2023년의 57만 4,900톤이었다. 특히 올해 5월과 6월은 각각 12만 5천 톤, 11만 5천 톤으로 월간 어획량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번 정책은 페루 수산업이 ‘성장과 보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성숙한 접근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9월 8일자,

Pescare, 2025년 8월 25일자

日 신문, 8월 말 냉동 오징어류 조업·무역 동향 보도

페루 오징어 조업 재개 外

일본 상사 관계자에 따르면, 금어 상태였던 페루의 아메리카 대왕오징어(홉볼트 오징어) 어업이 재개된다. 올해 페루의 어획 할당량은 50만 4,000톤이지만, 1~6월에 이미 42만 1,974톤을 어획하면서 어획량 조절을 위하여 금어기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8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남은 8만 2,026톤의 쿼터 내에서 어획이 이루어진다. 다만 상사 관계자는 “8만 톤은 결코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중국 어선이 적도 수역에서 잡는 적도오징어의 중국 내 산지 가격(라운드 기준)은 8월 중순 시점에서 1미당 500g 이하 톤당 1만 9,000~1만 9,500위안, 500g~1kg은 1만 7,000~1만 7,500위안, 1~2kg, 2~4kg은 1만 6,000~1만 6,500

위안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껍질 포함 대형 필렛은 2만 8,000~2만 8,500위안, 귀 부위는 2만 6,500~2만 7,000위안, 다리는 2만 5,500~2만 6,500위안이었다.

상사 관계자는 “페루 홉볼트오징어 금어로 인하여 원료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하였다. 현재 약 320척이 조업 중이며, 1척당 1일 평균 2~3톤 전후를 어획하고 있다.

일본 재무성 무역통계에 따르면, 1~6월 냉동 오징어류(일렉스오징어류, 홉볼트오징어류 등 포함) 수입량은 전년도 동기 대비 23% 감소한 2만 8,382톤을 기록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8월 29일자



중국 항만서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가격 보합세

가격 강세 속 지속가능 관리 체제 강화

중국 항구에서 거래되는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가격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 35주 차 동안 변동 없이 유지되며 최근 상승세 이후 고점을 이어갔다. 다른 오징어 품목은 등락이 엇갈렸다.

아르헨티나산 오징어 전 사이즈의 가격은 전주 대비 변동이 없었지만, 전년 대비로는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200~300g급은 15.5%, 400~600g급은 각각 15%와 11.7% 상승해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가격 안정은 최근 포클랜드 제도에서 체결된 새로운 지속가능성 협정과 맞물려 있다. 협정은 산란기 롤리고오징어 자원의 보호를 위해 최소 1만 톤의 자원을 바다에 남아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자원량은 약 1만 8천 톤으로 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수준이다. 올 여기에는 이미 20일간 조업이 진행되어 한 번의 조업도 없었던 지난해와 대조를 이뤘다.

다만 업계에서는 “급격한 자원 감소가 발생할 경우 조업이 중단될 수 있다”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현재 포클랜드에서 활동 중인 갈리시아 지원 트롤선은 16척이다.

반면 아르헨티나 연안 어획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7월 말 기준 누적 어획량은 20만 6,500톤으로, 이미 2024년 연간 어획량 15만 4,600톤을 넘어섰다. 특히 5월 어획량은 4만 4,900톤으로 전년 동월(2만 1,000톤)의 두 배를 초과하였다.

이와 함께 페루·칠레 연안에서 잡히는 홈볼트 오징어(Dosidicus gigas)는 대형 개체에서 소폭 가격 상승이 나타났다. 0.51kg급은 1.75%, 12kg급은 0.63%, 2~4kg급은 0.95% 상승하였으며, 500g 미만 소형 개체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한편, 유럽 시장에서 거래되는 포클랜드산 오징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올해 어획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선단의 수익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포클랜드 당국은 고정된 조업 기간 대신 주 2회 업데이트되는 과학 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전문가들은 포클랜드 오징어 어업이 3년 연속 2차 여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변화와 남획이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 출처: Dalekayaokraina.ru, 2025년 9월 1일자





NGO “IUU 연루 어선의 칠레 입항 증가” 주장

페루 당국 규제 강화 여파

아르헨티나의 환경 NGO ‘환경정책서클’(이하, CPA)은 IUU 어업 활동에 연루된 어선들이 칠레 항구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NGO는 글로벌 피싱 워치(Global Fishing Watch)와 IUU 데이터 기업 스카이라이트(Skylight)의 자료를 인용하여, IUU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중 올해 상반기 칠레에서 서비스를 받은 선박 수가 총 25척에 달했다고 밝혔다. 2024년 같은 기간 동안 서비스를 받은 선박이 한 척도 없었던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다.

CPA 등록 자료에 따르면 칠레는 이러한 선박에 서비스를 제공한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유일한 남미 국가였다. 2024년과 2025년 첫 6개월 동안 아르헨티나는 3척에서 0척으로, 브라질은 2척에서 1척으로 감소하였으며, 페루는 61척에서 0척으로 급감하였다. 한편, 에콰도르는 0척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수도 몬테비데오가 IUU 선박이 선호하는 라틴 아메리카 항구로 알려진 우루과이는 23척으로 변동이 없었다.

올해 초, 남태평양 대왕오징어 지속가능 관리 위원

회(이하, CALAMASUR)는 페루가 주로 중국 원양 어선단을 겨냥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면서 IUU 선박들이 비규제 어획물 하역, 수리, 재급유, 선원 교체 등 물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더 우호적인’ 항구를 찾게 되었음을 시사하였다. 페루는 최근 입항 이유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 선박에 정부가 승인한 SISESAT 위성 장치를 탑재하고 활성화하도록 요구하는 등 더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였다.

CPA의 해양 정책 담당관 밀코 슈바르츠만은 CPA 보고서가 CALAMASUR의 주장을 뒷받침하며, 해당 정보가 아직 칠레 정부에 공식적으로 공유되지는 않았지만 데이터가 칠레 당국에 간접적으로 전달되었을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하였다.

슈바르츠만은 “우리는 칠레 쪽 대표가 없고 현재 업무가 과중한 상태지만, (이 정보를 칠레에 제출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본다”라며 “연말까지 어선단의 동향을 추적하고 평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25척의 선박은 모두 중국 국적이며, 전부 비규제 방식으로 조업한 기록이 있다.

* 출처: Seafoodsource, 2025년 8월 22일자



Intrafish “흰살생선 업계, 러 상황 변화에 대비 필요”

트럼프-푸틴 알래스카 회담 이후 업계 예의주시

노르웨이 수산 전문 미디어 Intrafish가 8월 미-러 회담 이후 이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도널드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이 8월 중순 알래스카에서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을 논의하자 전 세계가 숨을 죽였다.

이번 회담은 푸틴에게 있어 큰 이익이었다. 2022년 침공을 직접 지휘한 그가 마치 ‘평화 중재자’처럼 보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담은 일정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우크라이나가 영토 포기를 수용할 것인가이다.

이번 사안은 세계적으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수산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흰살생선 업계에 있어 러시아의 침공 이후 충격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매년 수백만 톤이 잡히는 이 자원의 흐름에 전 세계 제재와 시장의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제 제재와 부정적 여론으로 인해 러 수산물이 서방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미국 당국이 모든 러시아산 해산물 수입을 금지한 미국 시장을 제외하면, 러시아산 명태와 대구는 유럽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였다.

영국은 흰살생선 수입에 35% 관세를 부과하였다. EU는 러시아 선박의 직접 하역을 금지하였으며 일부 무역 특혜도 중단하였으나, 유럽 내에서 러시아산 물량이 크게 줄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변화를 예고한다. 특히 러시아 기업 노레보(Norebo)와 무르만 시푸드(Murman SeaFood)가 간첩 혐의로 EU 제재 대상에 올랐고,

노르웨이도 이에 동참하였다. 이는 노르웨이의 가공 업체들에 큰 타격을 줬는데, 러시아 흰살생선이 노르웨이에서 재가공돼 유럽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어떤 점에서는 두 기업에 대한 노르웨이의 제재 결정이 (노르웨이와 유럽에) 더 큰 타격이었을 것이다. 러시아산 흰살생선은 노르웨이에서 재가공을 거쳐 유럽으로 유입되어 왔으며, 노레보와 무르만은 상당한 규모의 공급업체였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 북부 가공업체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유럽수산가공업협회(이하, AIPCE)는 EU의 수입 흰살생선, 특히 러시아산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지적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성공적으로 설득해왔다.

유럽 시장에서 러시아산 수산물이 사라지는 것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다. 저렴한 가격으로 그 공백을 메울 만큼의 자연산 흰살생선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가공 라인도 가동을 멈출 것이고, 수천 개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더 높은 수준의 제재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흰살생선 품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 결과는 물량 감소다.

이미 대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업들은 명태와 같은 더 저렴한 대안을 찾기 위해 분주한 상황이다. 명태마저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저렴한 흰살생선에 대한 선택지는 거의 남지 않게 된다. 판가시우스처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어종도 일부 제품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AIPCE의 로비 활동과 고용 수준을 유지



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의지는 전면적인 금수 조치를 막기에 충분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푸틴의 계속되는 침략과 무모함은 EU 지도자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러시아와 푸틴, 그리고 그의 동맹을 견제하기 위하여 꺼낼 카드가 바닥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러시아가 다시 한번 세계 무역에 참여할 길을 열어 줄 휴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우크라이나가 다음 러시아의 침공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영토를 포기하는 것을 거부할까?

만약 우크라이나가 반대한다면 전쟁은 계속되고, EU는 제재의 고삐를 더욱 조이게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가 동의한다면 EU와 러시아 간의 경제 관계 해

빙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동 회의에서 러시아산 제품의 미국 재수입이 허용되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회의의 분위기와 기조는 러시아와의 무역 재개가 매우 현실적인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알래스카 회담에서 명확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기업들은 다음 전환점에 더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있다. 만약 기업들이 아직 '만일의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 러시아산 흰살생선 무역 흐름의 또 다른 주요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해결책이 즉각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날의 정치 환경에서는 사전 경고가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

* 출처: Intrafish, 2025년 8월 15일자

러, 9월 2일 기준 어획량 347만 톤 달성

극동 수역, 전체의 77% 차지

러연방수산청 조업감시센터(FMC)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 기준 수생생물자원 어획량은 347만 3,300톤을 달성하였다. 이는 지난해 대비 6만 7,000톤인 1.9% 감소한 기록이다. 수역별 어획량은 다음과 같다.

- **극동 수역 269만 1,000톤**(지난해 대비 100톤 감소)
 - 명태 164만 3,400톤(3만 3,100톤 증가), 대구 8만 8,500톤(300톤 증가), 청어 37만 5,300톤(5만 7,900톤 증가), 가자미 5만 3,200톤(200톤 감소), 연어 31만 500톤(10만 1,700톤 증가)
- **북부 수역 24만 4,000톤**(지난해 대비 11만 2,000톤인 31.5% 감소)
 - 대구 13만 2,900톤(5만 9,300톤 감소), 해덕 4만 3,200톤(100톤 감소)
- **서부 수역 5만 4,300톤**(지난해 대비 1,100톤

인 2.1% 감소)

- 유럽 청어 3만 1,500톤(400톤 증가), 발트해 청어 1만 8,000톤(500톤 감소)

• **아조프-흑해 수역 3만 2,500톤**(지난해 대비 9,400톤인 40.8% 증가)

- 멸치 1만 2,600톤(3,400톤 증가)

• **볼가-카스피 수역 5만 1,900톤**(지난해 대비 1,500톤인 2.9% 증가)

- 유럽 청어 2만 2,600톤(1,900톤 증가), 기타 잡어 9,400톤(2,000톤 감소)

• **원양 수역 37만 9,469톤**(지난해 대비 3만 5,387톤인 10.3% 증가)

- 외국 EEZ 16만 3,823톤(2만 5,974톤인 13.7% 감소), 국제기구 관리수역 등 공해 수역 21만 5,646톤(6만 1,361톤, 39.8% 증가)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5년 9월 4일자



러 H&G 명태 가격 소폭 하락

소형 개체 어획량 부족이 급락 방지

러시아산 냉동 명태 H&G(머리·내장 제거)의 중국형 CFR(운임 포함 인도) 가격이 8월 18~24일(34주차)에 다시 소폭 하락하였다. 업계는 이번 여름 가격 조정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의 한 판매업자는 “소형·중형보다 대형 명태가 더 많이 잡히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라며 “하지만 중국 바이어들은 30cm 이상보다 25cm 이상을 더 선호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유럽의 한 구매자도 “명태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더 큰 하락은 어려울 것”이라며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라고 말하였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UndercurrentNews는 25cm 이상 규격의 CFR 가격을 전주 대비 10달러 하락한 톤당 1,550~1,560달러로 평가하였다.

30cm 이상 규격은 이보다 약 톤당 60달러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러 명태 중국 수입 가격은 지난 한 달간 약 25달러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최근 2년간 같은 시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현재보다 약 500달러 낮게 거래된 적도 있다.

한편, 현재 중국 구매자들의 관심은 러시아 극동 연해주 지역의 곱사연어(pink salmon) 시즌에 집중되어 있다. 올해 연어 어획량은 예상을 웃돌며, 8월 11~17일(33주차)에 연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극동 지역의 자연산 연어 누적 어획량은 29만 964톤에 달했으며, 올 시즌 총 어획량은 43만 5,761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8월 20일자

러 어업 허가, 2026년 3월부터 전자등록제 전환

허가서 발급 폐지, 온라인 등록부 기반 관리

러시아는 오는 2026년 3월 1일부터 수생생물 자원 어업 허가제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허가 발급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으로, 기존 방식에서 단일 전자 등록부 기반의 ‘등록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모든 허가 정보, 어업 기업 및 어선 관련 자료는 국가 온라인 플랫폼에 통합 관리되며, 접근 권한은 감독기관에만 부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는 전자 또는 종이 형태로 발급되

지 않고, 법적 효력을 지닌 전자 등록부 기록으로 대체된다. 기업은 필요시 등록부에서 발급받은 ‘등기 증명서’를 통해 권리를 입증할 수 있다.

이행 기간은 2027년 1월 1일까지로, 그때까지는 각 어선 및 비선박 어획 종사자가 해당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이후에는 어업 기업이 현장 점검 시 감독기관에 등록부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증명서 제출 의무는 유지된다.

* 출처: Portnews.ru, 2025년 8월 22일자



러, 태평양 청어 권고 어획량 급증

14만 3,500톤으로 증가

러시아 당국은 최근 수년간 어획량을 제한하였던 베링해 서부 지역의 2025년 태평양 청어 권고 어획량을 대폭 증량하기로 하였다.

8월 22일, 러 수산청 북동부 영토 부서는 베링해 서부 구역의 태평양 청어 권고 어획량을 11만 3,500톤에서 14만 3,500톤으로 3만 톤 상향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태평양 청어 권고 어획량 증가는 불과 2주 만에 이루어진 두 번째 상향 조정이었다.

지난 8월 7일에는 별도의 정부 의정서에 따라 베링해 서부 지역의 권고 어획량이 8만 2,864톤에서 11만 3,500톤으로 상향되었다.

2022~024년 러시아 당국은 태평양 청어 자원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베링해 북위 179도선 서쪽 구역에서의 어획을 제한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당 구역에서의 총 어획량은 2022년 8만

2,700톤에서 2023년 3만 5,900톤으로 줄었다.

지난해 10월, 농업부는 오호츠크해 북부 아구역의 태평양 청어 총 TAC를 전년도와 동일한 31만 톤으로 설정하였다. 2025년 태평양 청어 TAC는 서캅카 아구역에 3만 9,400톤, 카라긴스키 아구역에 5만 100톤으로 설정되었으나, 베링해 서부 구역의 TAC는 규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8월 21일 기준, 러시아 극동 지역의 태평양 청어 어획량은 35만 9,6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만 5,700톤 증가하였다고 러 수산청은 밝혔다.

러 국내 태평양 청어 가격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극동 지역에서는 8월 18일 기준 kg당 115루블(1.42달러)로 보고되었다. 전주 대비 동일한 수준이지만, 2025년 초와 비교하면 23.3% 하락한 수준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8월 20일자

러, 가공 및 냉동 장비 국산화 성공

국산 선박 장비, 어선 현대화의 핵심

러시아연방 수산청장 일리야 세스타코프는 최근 레닌그라드주에 위치한 마린 콤플렉스 시스템즈(이하, MKS)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였다.

MKS는 설계부터 최종 고객 인도까지 모든 단계에서 선박 건조용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어류 가공 및 냉동 설비를 자체 개발·양산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서 청장은 흰살 생선 가공 중형 선상 공장을 직접 확인하였다. 해당 설비는 냉동 필렛을 포함하여 하루 최대 40톤의 제품 생산이 가

능하며, 이는 일일 생산량의 50%에 해당한다.

MKS는 최근 무르만스크에 신규 생산 기지를 구축하였다. 이곳에서 선박용 냉동 시스템, 어류·계 가공 라인, 고성능 어류 부산물 처리 장치 등 첨단 장비가 생산될 예정이다.

현재 MKS는 대·중·소형 선상 가공·저장 공장을 위한 혁신 기술을 개발·도입 중이며, 자체 엔지니어링 센터와 기술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 출처: PortNews.ru, 2025년 8월 10일자



러 어선사협회, 환경부담금 인상안에 우려 표명

포장재 규제 강화 시 업계 비용 최대 8배 증가 가능

러시아 어선사협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포장재 환경 부담금 인상안이 시행될 경우, 어업인의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환경부가 마련한 이번 정부령 개정안은 수산물 주요 제품(냉동어, 필렛, 다진 생선, 어분 등)에 사용되는 포장재에 대한 부담금을 대폭 인상하고, 특히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포장재에는 가중계수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선사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현재 업계의 연간 생태부담금 납부액은 약 1억 1천만 루블 수준이지만, 인상안이 시행되면 8억9천만 루블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는 8배에 달하는 증가이다.

협회는 이미 업계가 ▲포장재 자체 가격(연

15~20% 상승), ▲연료비, ▲선박 정비·운영비, ▲물류비 등 다양한 비용 상승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고금리 속 선박 현대화 투자와 대출 상환 부담까지 겹쳐 있다고 지적하였다.

어선사협회는 “부담금 비용은 최종적으로 포장 단가에 반영되어 어업인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협회는 이번 인상안이 시기상조라며, 2024년 8월에 이미 개정된 기존 부담금 제도의 집행 결과를 먼저 평가한 뒤, 개정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평가 보고서를 러시아 농업부에 제출한 상태이다.

* 출처: Portnews, 2025년 8월 20일자

러, 수산물 물류 구축 박차

푸틴 대통령 강조

일본 홋카이도 기선련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9월 3~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수산물의 국내 소비 확대를 위한 물류 구축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동방경제포럼에서 셰스타코프 러시아 연방 수산청장은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부응하는 형태로, 투자 목적 어획 쿼터의 재편 및 확대와 더불어, 운반선 건조를 촉진할 방향성을 시사하였다.

투자 쿼터는 1차(2018~24년)와 2차(23~24년)를 통해 총 138척의 어선 건조가 계획되었다. 그

러나 현시점에서 완공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 건조 기간이 길어 일부 어업인과 투자자들이 프로젝트를 지속할 수 없게 된 것이 원인으로 전해졌다.

운송선 건조와 물류 인프라 건설에는 투자 쿼터가 필요하게 된다. 셰스타코프 청장은 어획물 운송이 여전히 구식 선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송 선단 또한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까운 장래에 기존 어업인들의 어획 쿼터가 삭감되는 등 추가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9월 8일자



러 대법원, 투자쿼터 분쟁서 수산업체에 유리한 판결

수산청 주장 인용 취소 및 재심리 명령 내리

러시아 대법원이 연해주 기반의 오케안리브플로트(Okeanrybflot) 산하 캄차카 소재 수산물 가공업체 비타즈-아브토(Vityaz-Avto)와 러시아 연방수산청 간 투자쿼터 의무 불이행 관련 분쟁에서 수산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8월 7일자 판결(8월 11일 공개)에서 하급심이 연방수산청의 주장을 인용한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명령했다.

연방수산청은 비타즈-아브토가 명태 투자쿼터 조건 중 '어획량의 최소 70%를 자체 시설에서 가공해야 한다'라는 요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19억 7,800만 루블(약 2,48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려 하였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2020~2021년 해당 회사의 하루 100톤 규모 가공공장은 어획량의 약 60%만 자체 가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하급심 법원들은 이 벌금을 인정하였으나, 비타즈-아브토는 대법원에 항소하였고, 이번에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연방수산청은 여러 러시아 수산물 가공업체들을 상대로 유사한 혐의에 대하여 다수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러시아 최대 명태 가공업체 중 하나인 '러시안 폴록(Russian Pollock)'이 있으며, 이 회사에도 10억 루블의 벌금이 청구됐다. 해당 업체는 계산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지난달 연방수산청이 합의 절차에 들어갔다.

모스크바 중재항소법원은 지난 7월, 이 합의가 비타즈-아브토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과 일치해야 한다고 판시했으며, 오는 9월 2일 합의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8월 12일자

러 RFC, 명태 연육 생산 약 40% 증가

A시즌 명태 알 6,700톤

러시아 명태어업 대기업인 RFC는 올해 A시즌(1월 1일~4월 10일) 동안 동사 명태 연육 생산량이 전년도 대비 38% 증가한 2만 9,000톤이라고 발표하였다. 명란젓 등의 원료가 되는 명태 알의 생산량은 6,720톤이며, 이 중 64%가 등급품이었다.

RFC는 "올해부터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러시아와 중국 시장에서 명태 알 소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A시즌의 명태 어획량은 19만 3,000톤이었다. 필렛 생산량은 11% 증가하였고, 회사 전체 생산량의 17%를 차지하였다. 어분은 21% 증가, 어유는 71%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번 A시즌에는 수퍼트롤선 5척을 포함한 총 10척이 조업했으며, 2026년에는 새로 2척의 수퍼트롤선이 추가로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9월 8일자



日 쯔치 어업, 근래 보기 드문 호조

9월 5일 시점 전년도 대비 어획량 3배

일본 쯔치 어업이 초반부터 근래 보기 드문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쯔치 봉수망 선단의 첫 조업(8월 15일)부터 9월 5일까지의 누적 어획량은 약 1만 1,000톤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3배 이상이다. 일본 전국 쯔치봉수망어업 협동조합(이하, 조합)은 홋카이도 네무로시에 위치한 하나사키항에 어획물이 집중되어 처리난이 발생하자, 양륙 후 '24시간 휴어' 조치를 취하였다.

여기 초반의 공해 어장에 더해, 8월 하순 이후 당일 조업이 가능한 일본 수역 내에도 어장이 형성되면서 어획량이 늘었다. 9월 2일 이후 홋카이도 동부와 산리쿠(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의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에서 미야기현 마쓰시마까지 이어지는 해안 지역)를 통틀어 1,000톤이 넘는 양륙이 이어졌고, 4일에는 하나사키항에 양륙된 1,400톤을 필두로 산리쿠, 조반 지역을 합쳐 올 시즌 가장 많은 2,000톤을 넘는 어획량을 기록하였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이하, JAFIC)에 따르면, 현재 어장은 하나사키항에서 동북동으로 약 800~900km 떨어진 공해로, 대형선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수역 내에 위치한 오치이시 근해에도 어장이 형성되어, 소형선 중심으로 조업 중이다.

공해 어획물은 1년생이 중심으로 1마리당 평균 140~150g대의 개체가 많다. 편도 1.5일에서 2일 정도 걸리지만 "하룻밤에 50~100톤을 잡는 배도

있다"라고 JAFIC 측은 전하였다. 홋카이도 오치이시 근해 어장은 0년생도 섞여 있어 평균 100~110g으로 크기는 작지만, 어장이 가까워 유류비를 절약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획물이 집중되는 하나사키항과 주변 가공 공장에서는 쯔치를 모두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과거 홋카이도 동부에서는 하루 2,000~3,000톤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었으나, 어획량 급감이 장기화되면서 인력 부족 등으로 물량 소화가 어려워졌다.

근래에 보기 드문 이른 시기의 어획량 증가로, 하나사키항 이외의 홋카이도 동부, 산리쿠 각 항구의 수용 태세가 갖춰지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조합은 3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4일 이후 양륙 후 '24시간 휴어'를 결정하였다. 보통은 양륙 후 바로 조업에 나선다. 오오이시 코헤이 조합 전무는 "산지의 처리 능력이 따라가지 못해 쯔치의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TAC 소진의 평준화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였다. 9월 12, 13일에는 양륙 후 '48시간 휴어'를 실시한다. 이는 어디까지나 긴급 조치이며, 향후 어획 상황을 보고 재검토할 방침이다.

하나사키 시장의 산지 시황은 8월 중순 양품이 kg당 500~1,000엔을 중심으로 고가에 거래되었으나, 9월 들어서는 가격이 150~300엔이 중심이 되고 최저가는 100엔을 밑도는 등 하락세를 보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9월 8일자



日 콩치 어획량, 8월 25일경 3,000톤 돌파

전년보다 10일 빨라

일본 수산업정보센터(이하, JAFIC)에 따르면, 8월 20일~25일 봉수망 조업 누적 어획량은 2,048.5톤으로, 전년도 동기(1,357.6톤) 대비 50.8% 증가하였다. 이어 26일에는 홋카이도 네무로시 하나사키항에서 약 1,000톤, 앓케시에서 약 80톤이 추가로 잡히며, 누계는 조기에 3,000톤을 돌파하였다.

JAFIC에 따르면, 25일까지 1일 1척당 어획량은 8~30톤 수준으로 다소 기복이 있었다. 어체 크기는 120~140g이 주류를 이루며, 100g 이상이 전체의 80~90%를 차지하였다.

앓케시에서는 25일 대형선 1척과 중형선 2척이 총 57.8톤을 양륙하였다. 위판가는 산물 기준 kg당 313~605엔이었고, 발포상자 기준 150g 이상급은

810엔이다. 23일 위판가(kg당 1,512 ~1,620엔, 평균 1,566엔)에 비해 69.5% 하락한 수준이다.

하나사키에서는 20일 위판가가 상자당 702~950엔으로, 첫 양륙일인 16일(540~1,080엔)보다는 다소 낮아졌다. 25일에는 최고 648엔, 최저 140엔으로 떨어졌다. 발포상자 기준 가격은 170g 이상 대형 개체가 1,944엔, 130g 이상 소형급은 324~356엔에 형성되었으며, 냉동품은 216~292엔이었다. 평균 단가는 20일 대비 63.8% 하락한 559엔으로 집계되었다.

일본 전국콩치어업협회 관계자는 “26일 이후에도 대량 조업이 이어질 전망이다 가격에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하였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8월 27일자

日 산리쿠, 9월 들어 콩치 양륙 본격화

어체, 품질, 어가 모두 호조

일본 산리쿠(三陸, 일본 도호쿠 지방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 지구에서 콩치의 위판이 본격화되고 있다.

어체 구성은 1미당 130~150g이 주체이며, 200그램 이상 대형 사이즈도 섞였으며, 어체의 지방도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균 단가는 오후나토가 kg당 331~390엔, 오나가와가 309~450엔, 가마이시가 320~400엔으로 형성되었다. 도매 관계자는 “어체 크기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가격”이라고 평하였다.

일본의 공해 콩치 봉수망 어업은 8월 중순부터 홋카이도 하나사키항 등에서 활발한 위판이 이루어져, 부진했던 지난 몇 년을 웃도는 위판 속도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 어업정보서비스센터에 따르면, 전국 신선 콩치 위판량은 8월 약 4,900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배로 증가하였다. 평균 단가는 16% 하락한 kg당 628엔이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9월 8일자



마루하니치로, 세계 최초 콩치 양식 성공

육상 기반 사업 목표

매출 기준 세계 최대 수산 기업인 일본 마루하니치로가 육상 수조에서 상업화에 가까운 수준으로 콩치를 시험 양식하는 데 성공했다. 민간 기업으로서는 세계 최초의 성과다.

도쿄에 본사를 둔 마루하니치로는 육상 시스템을 중심으로 상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회사 대변인이 언더커런트뉴스에 밝혔다.

9월 9일 발표에 따르면, 가고시마에 위치한 동사의 양식기술개발센터는 이전에 세계 최초로 수조 내 산란에 성공한 바 있는 후쿠시마 해양과학관의 지원을 받아 2023년 10월 콩치 양식 연구를 시작하였다.

과학관에서 공급받은 수정란을 이용해, 마루하니치로는 참다랑어, 방어, 잭방어, 참돔을 다루며 수십 년간 쌓아온 전문 지식을 적용하여 사료와 사육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2024년 6월까지 출하 크기로 여겨지는 100g 이상으로 성장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연구팀은 또한 작년 8월에는 인공수정에 성공하며 상업화를 향한 또 다른 기술적 이정표를 세웠다.

대변인은 언더커런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완전 양식 성공은 우리 혼자서 거둔 성과가 아니다”라며 “후쿠시마 해양과학관의 지원을 받아, 부화장에서 생산된 치어부터 시장 판매 크기까지 콩치를 키우는 완전 순환 사이클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목표이다”라고 말하였다.

대변인은 “콩치 양식은 극히 드물며, 이번 성공은

세계 최초로 여겨진다”라고 언급했다.

“콩치의 해상 가두리 양식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므로, 육상 양식이 상업화의 기반이 될 것이다”라며 “하이브리드 방식도 고려하고 있지만, 육상 양식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대변인은 말하였다.

대변인은 또한 대도시 인근 건설 여부를 포함한 양식장 위치에 대한 결정은 아직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양식 시험에서 콩치는 알에서 성체 크기까지 약 6개월 만에 성장하는 능력을 보여, 양식 어종으로서의 효율성을 입증하였다고 대변인은 강조하였다.

이러한 성장 잠재력은 일본 내 공급 전망이 여전히 어두운 상황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 장기적인 자원 감소와 쿼터 강화 속에서, 마루하니치로는 양식을 미래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전략적 옵션으로 보고 있다.

2024년 도쿄 도요스 시장에서 신선 콩치 3,300톤이 거래되었으며, 평균 가격은 kg당 1,204엔(8.18 달러)을 기록하였다. 2008년에 비해 물량은 60% 감소하고, 평균 가격은 kg당 약 3배로 상승하였다.

대변인은 마루하니치로가 아직 향후 콩치 양식 사업의 가격이나 사업 규모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마루하니치로는 1960년대 후반 방어 양식을 시작으로 1985년 세계 최초 참다랑어 양식, 2010년 참다랑어 완전 양식 달성 및 2015년 상업 출하 개시 등 세계 양식업에서 여러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왔다.

* 출처: UndercurrentNews, 2025년 9월 10일자



日 홋카이도 푸른생선 어업, 시즌 본격화

꽂치 봉수망 어획 시작 外

홋카이도 동부 태평양 연안에서는 앞으로 꽂치와 정어리 등 푸른생선의 어획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꽂치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생산 회복이 이뤄질지 주목되며, 정어리 어업은 오봉(8월 중순경의 일본 명절) 전까지 부진했던 전반전을 만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꽂치 동향 - 대형 어체 증가 기대〉

꽂치 어업은 8월 10일부터 10톤 이상 봉수망 어선의 공해 조업이 해제되면서 시작했다. 첫 번째 출항에서는 대형선을 중심으로 56척이 북태평양 공해에서 조업하였으며, 15일에는 네무로시 하나사키항에 9척이 귀항하여 지난해 첫 어획(4척 67톤)을 웃도는 약 170톤을 첫 양륙하였다.

어체는 평균 130g으로, 전년도 100g 미만보다 좋아졌다. 위판 가격도 산지에서는 kg당 540~1,080엔으로, 지난해 첫 위판 가격(194~724엔)을 상회하였다. 16일 이후에도 하나사키와 앓케시에서 위판이 이어지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7월 하순 발표된 ‘꽂치 장기 어황 예보’에 따르면, 이번 어기 중 어장 접근량은 “지난해와 비슷한 낮은 수준”으로, “전반기는 지난해를 밀돌고 후반기는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군은 1세어가 전체의 8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평균 체중은 110~120g대로 지난해(80~100g)보다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기에는 120~140g대로 최근 년도 중에서는 큰 편이고, 후반기는 평균 수준인 110~120g

대일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자원 조사에서는 꽂치와 분포가 겹치는 정어리의 어획 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 그 결과 “꽂치가 일본 근해에 접근하기 쉬워질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어장은 공해 중심으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구시로 앞바다의 난수와 영향으로 도토(道東, 홋카이도 동부) 연안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어획량 회복 이어질까〉

일본 전국꽂치협회 집계에 따르면, 2024년 일본 꽂치 어획량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3만 8,695톤(홋카이도 2만 3,904톤)이었다. 전성기 10만 톤 이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2022년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어획 금액도 78% 늘어난 1,800억엔에 달하였다. 어군 접근량이 “지난해 수준의 저수준”으로 전망되는 가운데서도, 협회는 “적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 가능하다면 그 이상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신선 어획 수요가 가격 견인〉

가공·유통업체는 어가 형성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는 어획 증가 속에서도 평균 단가가 전년대비 12% 상승한 kg당 465엔(일본 전국 기준)을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신선용 어획물과 가공 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가 강하였기 때문이며, 도토 지역의



가공업체들은 “가공 공장의 매입 경쟁도 있었다”라고 지적하였다. 신선 판매는 호조였으나 가공업체 측에 따르면 냉동이나 염장 꽂치는 “품질 대비 가격이 비싸 재고가 일정량 남아 있다”라고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산지 가격 형성은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반면, “대형마트는 지난해 신선 꽂치 판매 실적을 추격할 것”이라며 신선 수요가 가격을 견인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된다.

〈정어리 동향 - 후반 반등 여부 주목〉

도토 앞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정어리 어업은 지난해보다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추석 이후 후반전에 반등할 수 있을지가 기대된다. 어분의 시장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단가는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도토 앞바다에서는 이번 여기에도 전국 24개 선단이 조업할 예정이며, TAC는 24만 3,600톤이다. 6월 중순 시작된 신 어기는 부진한 출발을 보였고, 일시적으로 선단이 모두 빠져나가는 상황도 있었다. 7월 들어 다소 회복하여 최대 19개 선단이 입항했

지만, 어장이 불안정하여 7월 말 현재 어획량은 전년 대비 46% 감소한 약 5만 100톤에 그쳤다.

어체는 50~60g대의 소형이 중심이며, 구시로·히로오에서 주로 어분용으로 처리되고 있다. 8월 초 기준 가격은 구시로에서 kg당 37엔, 히로오에서 35엔으로 전년 대비 20% 저렴하다. 가공용은 45~55엔 수준이다.

가공업계는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국제 어분 가격 약세를 꼽는다. 지난해 러시아산 정어리의 풍어로 러시아와 중국에서 어분 생산이 늘어나 국제 시장의 공급이 완화되었으며, 중국 경기 둔화로 양식 수요도 위축되었다. 한 가공업체는 “올해 어분용 정어리 어업은 ‘버티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어리 어업은 9~10월이 승부처가 될 전망이지만, 최근 몇 년간 9월에는 어획이 늘지 않고 10월은 기상이 나빠 조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가공업체들은 “지난해 어획 실적인 20만 6,200톤에 도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5년 8월 25일자

8/23 꽂치 공해 어획량, 최근 3년 평균치 초과

러 연구기관 발표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원양선단의 꽂치 어업이 시작되고 있다. 8월 23일까지의 이번 어기 어획량은 6만 2,300톤을 넘어섰다. 해당 내용은 일본 홋카이도 기선련의 북양개발협회가 러시아 해양연구기구의 정보를 인용하여 밝혔다.

동 협회에 따르면, 조업 중인 선단은 한국 또는

대만 선단이다. 선단의 어장은 우루프섬(쿠릴 열도 중부의 섬)에서 동쪽으로 550km에 위치한 북위 46도 10분·동경 157도 40분 부근이다. 생산효율은 최근 3년간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9월 3일자



NOAA, 수산물 수입 규정 강화

美, 한국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 부분 충족 평가

미국 해양대기청(NOAA) 산하 어업국(NOAA Fisheries)은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수입 규정에 따른 비교 가능성 판정(Comparability Findings)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미국 수산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 포유류 보호를 위한 글로벌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판정 결과〉

89개국: 전면 승인(Full comparability finding)

34개국: 부분 승인(Partial comparability finding)

12개국: 불승인(Denial of comparability finding)

이에 따라 총 46개국 수산업은 향후 미국 시장에서 엄격한 수입 제한을 받게 된다.

2026년 1월 1일부터 비교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은 수산물은 미국 시장에 수입할 수 없다.

비교 가능성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산물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상업적 어업 과정에서 해양 포유류를 고의로 사망하게 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것을 금지할 것.

- 수출되는 수산물이 해양 포유류를 의도적으로 포획하였거나, 혹은 중대한 상해를 입히는 행위와 무관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를 갖출 것.

- (수출어업의 경우)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혼획 관리 규제 체계를 운영할 것.

비교 가능성 판정은 4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불승인 판정을 받은 국가는 2026년 1월 이후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여 재신청할 수 있다.

NOAA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국 어업 종사자들이 이미 준수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혼획 저감 기준

을 외국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수산물 산업 보호 △공정 경쟁 환경 조성 △해양 포유류 보전 강화라는 세 가지 효과를 목표로 한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대부분의 수출 어업은 미국 규제 프로그램과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돼 수출이 계속 허용된다. 그러나 자망·저인망·낭장망 등 14개 어업은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 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비교가능성 판정을 받지 못하였다.

보류 사유는 멸종위기종 상괘이에 대한 혼획 저감이 미흡하고 국제적 저감 장치 미도입, 실효성 낮은 대책과 어구 특성상 혼획 위험이 지속적으로 존재함 등이 주요 원인이다.

세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법으로 해양포유류 포획을 전면 금지(연구·구조 목적만 예외)하며 의도적 해양포유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원양어업은 옹서버 제도와 보고 의무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안·내수면 어업은 혼획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왕고래·흑등고래 등은 허용치 이하였으나 상괘이, 일반돌고래, 밍크고래 등은 혼획 허용치를 초과하였다.

한국은 해양포유류 혼획 저감을 위해 탈출구 장치를 개발 및 시험하고 있으며, 정치망 일부 어업의 저감 장치 시범 시행 등 진전은 있으나, 전면적 시행은 부족함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주요 국제수산기구(IATTC, ICCAT, WCPFC, SPRFMO 등) 규정을 준수하며 원양어업에서 혼획 저감 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출처: 미국 해양대기청, 2025년 8월 29일자



러, 노르웨이에 EEZ 봉쇄 경고

바렌츠해 공동 관리 체제 위기

러시아가 노르웨이의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노르웨이 어선의 러시아 EEZ 접근 금지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경고하였다.

8월 27일 열린 러시아-노르웨이 어업공동위원회 임시 회의에서 러시아 연방수산청 청장 일리야 세스 타코프는, 노르웨이가 7월부터 러시아 원양업체 노레보와 무르만 시푸드 의 노르웨이 EEZ 내 조업을 금지한 것은 수십 년간 유지된 북대서양 어업 관리 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노르웨이가 한 달 내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 역시 자국 EEZ에서 노르웨이 선박의 조업을 금지하고, 바렌츠해·노르웨이해의 공해 구역 어획 쿼터를 “러시아의 국가 이익에 따라”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노르웨이 양국은 1976년 협정을 맺고 바

렌츠해 및 인근 해역의 수산자원을 공동 관리해 왔다. 전문가들은 공동 관리가 없다면 자원 남획과 어종 붕괴 위험이 증가하며,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생태·산업적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갈등은 노르웨이가 EU의 제17차 대러 제재에 동참해 러시아 원양기업을 제재 명단에 올린 데 따른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1976년 양자 협정과 1969년 「국제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노르웨이가 유럽연합 제재를 근거로 들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실제 분쟁 해결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외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어,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 출처: Vedomosti.ru, 2025년 8월 28일자

터키-소말리아 전략적 수산업 협력 본격화

양국 간 투자·어획·수출 전 과정의 수산 협정 체결

터키와 소말리아가 전략적 협정을 체결하고, 터키 원양어선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본격적으로 조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소말리아 주재 터키 대사 알페르 악타쉬는 모가디슈에서 열린 2025년 국가어업주간회의 행사에서 올해 안에 터키 어선이 소말리아 측과 공동으로 조업을 시작해 이 자원이 현지 주민들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말리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최

근 어선 면허제도를 개편하고, 의회 차원에서 해양자원 종합법을 통과시키는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개혁을 진행 중이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소말리아 해역은 인도양 서부에서 가장 풍부한 어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터키와의 협력이 소말리아 경제 성장과 청년층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Fishery.ru, 2025년 9월 3일자



유럽·미국, 남극크릴 보호구역 설치 요구 증대

유럽·미국 과학자들, 러시아 남획에 우려

최근 러시아가 남극해에서 남극크릴 어획량을 급격히 늘리고 있는 가운데, 유럽과 미국의 과학자 및 환경 보호 단체들이 남극해에 해양보호구역을 긴급히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홋카이도 기선어업 협동조합연합회(이하 기선련)가 유럽·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하여 해당 소식을 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과학자와 환경단체들은 최근의 어획 급증 원인이 RFMO의 실패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러시아, 미국, 중국 등 24개국이 새로운 어업 규제 방안을 두고 협의 중이라고 전하였다.

반면 러시아 측은 해양보호구역 설치 요구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해양과학기관인 전러시아해양어업연구소 태평양지

부 측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CCAMLR)가 여러 국가들의 영향 아래 충분한 과학적 정당성 없이 크릴 어업 관리 체계를 변경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CCAMLR 수역에서의 포괄적인 과학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CCAMLR에 따르면, 2024~2025년 어기 동안 남극 크릴 어획량은 7개월 만에 허용량의 약 84%에 해당하는 51만 9천 톤에 도달하였다.

러시아는 2021년 남극 어업 계획을 승인하며 크릴 어업 부활을 목표로 내세웠다. 2024년 3월부터는 약 30년 만에 CCAMLR 수역에서의 조업을 재개하였으며, 같은 해 어획량이 8만 3,000톤에 이르렀다.

* 출처: 미나토신문, 2025년 8월 27일자

中,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 지위 지속

해양 양식 현대화와 대규모 생산 확대

중국은 해양경제의 핵심 분야인 해양어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세계 최대 수산물 생산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해양 양식 산업의 전환과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며 ‘푸른 곡창(穀倉)’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동안 중국은 수산물 생산량에서 여러 해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현재 중국 전역에는 국가급 해상 목장(‘해양 목초지’, 인공적으로 조성된 바다

의 양식장이나 해양 생태 복원 구역 등 해양 생물 번식 유도 시설) 169곳이 조성되었으며, 2024년 기준 수산물 생산량은 3,700만 톤을 넘어섰다.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거시경제연구원의 장칭평(張成鵬) 부연구원은 “중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식품 수요 구조 개선에 따라 수산물이 식량안보와 식품 공급 체계의 다양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 출처: Fishnet.ru, 2025년 8월 20일자



英 연구팀 “저인망어업 탄소 규제, 과학적 근거 부족”

디테일 부족한 평가, 과도한 어업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

최근 국제 언론은 저인망 어업이 해저 퇴적층을 교란해 대규모 탄소를 방출한다는 보도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CO₂가 기후변화를 가속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러나 영국 맨체스터대학교와 임페리얼칼리지런던, 영국해양어업과학센터(Cefas) 등이 참여한 최신 연구는 이런 주장을 모든 어업과 해역에 일괄 적용하는 것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영국 남서부 수역에서 트롤과 어패류 조업을 통해 시료를 채취한 결과, 해당 지역은 유기탄소 함량이 원래 낮았고, 조업 후에도 탄소 감소나 재광물화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트롤링의 탄소 영향은 해역과 퇴적층 특성, 어구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업계의 오랜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인 셈이다.

남서부어업생산자조합(SWFPO) 줄리엣 해치먼 대표는 “이번 연구는 모든 트롤 어업이 막대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는 대중적인 인식이 심각한 오해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라며 “현행 가정 방식에 기반한 어업 관리는 어업의 영향을 심각하게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하였다.

이번 연구는 탄소·기후 이슈가 어업 규제로 직결되는 현 상황에서, 정책이 반드시 해역별·어업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앞으로 자원관리·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조업 환경과 어구 특성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제시하여 과도한 규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를 이끈 안 히딩크 교수는 “현재 우리는 해저 탄소에 대한 트롤어업의 영향을 확실하게 예측

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다”라며 “이번 프로젝트는 거친 퇴적물(coarser sediments)에 관한 지식 격차를 메우는 데 기여하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서로 다른 해역에서 다양한 어구가 미치는 단·장기적 영향을 모두 평가해야, 트롤어업이 언제, 어디서 탄소를 방출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구진은 해양 탄소 순환에 대한 이해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어업 활동과 ‘블루카본(blue carbon)’ 저장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연구 분야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해양은 지구 CO₂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완전한 데이터에 기반한 포괄적 조치는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연구는 부각시켰다.

연구 결과는 “모든 저인망어업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일반화된 가정이 아닌 특정 어업의 현실을 반영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관리를 해야 한다”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블루카본에 대한 사회·정치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책 결정자들이 어업이 해저 탄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는 견고하고 실증적인 데이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해저 탄소 역학은 복잡하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 역시 충분히 정보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언론의 주목을 받는 큰 틀의 주장 대신, 미래의 해양 정책은 증거에 기반한, 지역별로 구체적인 과학이 이끌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출처: Fishing News, 2025년 7월 30일자



베트남, IUU 어업 근절 위한 다각적 대응 강화 바렌츠해 공동 관리 체제 위기

베트남 캄란 지역의 해양국경수비대가 불법·비신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종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캄란 국경수비대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5차 IUU 어업 현장 점검을 앞두고, 유럽연합의 옐로 카드 해제를 위해 ▲법제 교육, ▲VMS(Vessel Monitoring System) 관리, ▲고위험 어선 출항 차단, ▲항구 감시 활동 등을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대응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령 홍보 및 인식 개선

항구와 부두 현장에서 어민을 대상으로 IUU 규정과 해상법 준수 필요성을 전단, 포스터, 방송,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하고 있다.

2. VMS 미작동 선박 단속

15m 이상 선박은 VMS 미장착 또는 미작동 시 출항이 제한되며, 귀항 시에는 위치 기록, 조업구역, 허가증 등 필수 서류를 국경수비대가 직접 점검하고 있다.

3. 고위험 어선 사전 식별 및 통제

불법조업 이력, VMS 이상 기록 등이 있는 선박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출항 전 단계에서 집중 감시 및 통제를 받고 있다.

4. EC 경고 대응체계 운영

EU의 IUU 제재를 피하고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검사 대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경비·행정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 출처: Vietnam.vn, 2025년 7월 30일자

아프리카 어장의 전갱이 자원 잠재력 확인 러 아프리카 국가 간 어업 협력

러시아 과학연구선 '아틀란트니코'가 수행한 '대(大) 아프리카 탐사' 결과, 기니비사우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가장 유망한 상업어종은 전갱이류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아프리카 전갱이와 열지느러미 전갱이가 주목받고 있다.

연구진은 또한 일렉소징어와 심해 저서성 어종(은개복치·앙골라 메를루사) 역시 자원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잠재적 어획 대상종으로 평가하였다. 이와 함께 시에라리온 EEZ에서는 도

미류, 민어류, 농어류(바리과) 등 저서성 어종이 상업 자원량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2025년 2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 연구팀은 180회 트롤링 조사를 실시하고, 3만 8천여 개체의 어류 길이 측정, 3,800여 개체 생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번 과학조사에는 러시아 전문가 외에도 기니비사우, 시에라리온 전문가 10명이 공동 참여하였다.

* 출처: 러연방수산청, 2025년 8월 25일자



FAO-OECD, 글로벌 수산물 소비 지속 확대 예상

수산물 무역 의존도 22% 달성으로 국제무역 중요성 커져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공동으로 「OECD-FAO 농업 전망 2025-2034」를 발간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세계 농산물 및 수산물 시장의 국가·지역·글로벌 차원의 발전 전망을 종합 분석한 것으로, 각국의 농업정책 수립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2034년까지 농·수산물 소비는 현재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증가는 주로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 발생하였다. 중간 소득 국가는 소득 증가에 따른 1인당 소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고, 저소득 국가는 인구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둘째, 소득 증가와 도시화에 따라 육류·수산물 등 단백질 및 영양이 풍부한 식품 소비가 늘어날 전망이다. 2034년까지 전 세계 열량 소비에서 축산물·수산물 비중은 6%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영양 불균형 지속: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1인당 하루 364kcal의 고영양 식품 섭취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소득 국가는 여전히 143kcal에 머물러 FAO가 제시한 '건강한 식단 기준(300kcal)'에 크게 못 미칠 전망이다.

셋째, 세계 농·수산물 생산은 향후 10년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은 주로 중간 소득 국가의 기술 도입, 투자 확대, 자원 활용 강화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4년까지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효율적 생산기법 도입으로 단위 생산당 배출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2034년에는 전 세계 소비 열량의 22%가 국제무역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식량 안보, 가격 안정, 영양 개선에 있어 규범 기반 다자 무역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여섯째, 생산성 향상으로 인하여, 농산물 실질 가격은 중기적으로 완만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후 변화, 공급망 차질,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인한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다.

보고서는 영양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식량 생산량 10% 확대 ▲농업 생산성 15% 향상 ▲저비용·저탄소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Fishnet.ru, 2025년 8월 20일자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향수

정지용

넓은 별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회돌아 나가고,
 일룩백이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뉘인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말리고,
 옅은 조름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짙벼개를 돌아 고이시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 빛이 그림어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흙추름 휘적시든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傳說(전설)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의와
 아무러치도 않고 여쁠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안해가
 따가운 해사살을 등에지고 이삭 짓던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하늘에는 석근 별
 알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우지깃고 지나가는 초라한 집웅,
 흐릿한 불빛에 돌아 앉아 도란 도란거리는 곳,
 -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





8월 오징어 국내 동향

8월 오징어 생산량,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감소

❖ 생산동향(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큰 폭 증가)

8월 오징어 생산량은 원양산 반입량이 줄면서 전월 대비 42.6%, 전년 동월 대비 36.5% 감소한 1만 373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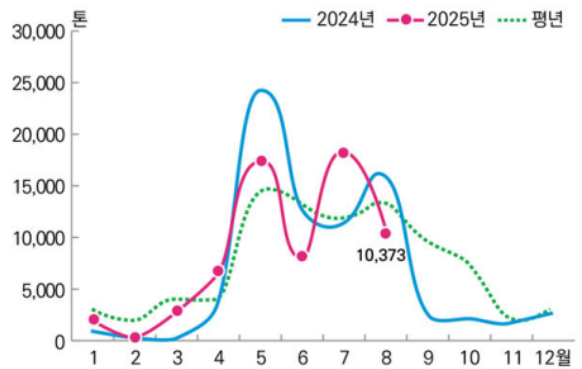
연근해산 생산량은 전월 대비 45.4% 증가한 8,363톤으로, 작년 동월보다 두 배 이상 많았으며 평년에 비해서도 14.0% 많았다.

해역별로 살펴보면 저인망어업의 위판량이 늘면서 남해권 위판 비중이 58.1%로 가장 높았으나, 수협별로는 서해권의 서산수협 위판량이 가장 많았다.

원양산 오징어 반입량은 2,010톤으로 전월 및 작년 동월 대비 8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한편, 8월까지 원양산 오징어 누적 반입량은 4만 6,061톤으로 평년과는 비슷했으나,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25.7% 적었다.

〈오징어 생산량 추이〉



❖ 가격동향(8월 연근해산 냉동오징어 소비자가격 미형성, 원양산 소폭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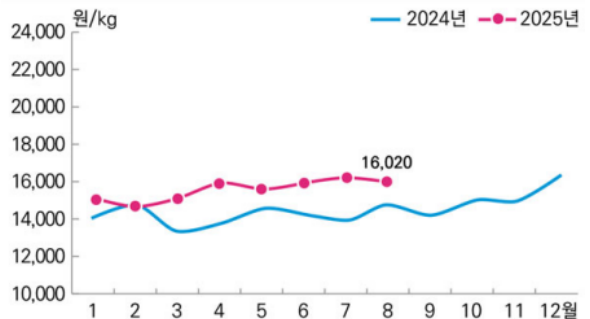
오징어(신선냉장) 산지가격은 kg당 9,280원으로, 생산량은 늘었으나 오징어 품질이 개선되면서 전월 대비 상승했으며, 연근해산 오징어(신선냉장) 도매가격은 전월 대비 2.9% 하락했다.

연근해산 오징어(신선냉장) 소매가격은 4월 이후 4개월 만에 형성되었는데, 연근해산 생산 증가 영향으로 작년 동월보다 7.8% 낮았다.

대부분의 연근해산 오징어가 신선냉장 형태로 공급됨에 따라, 8월 연근해산 오징어(냉동) 도매가격 및 소매가격은 형성되지 않았다.

원양산 오징어(냉동) 소매가격은 전월 대비 1.1% 하락했는데, 이는 7월 말 많은 양의 원양산이 반입된 데 따른 영향이다.

〈원양산 오징어(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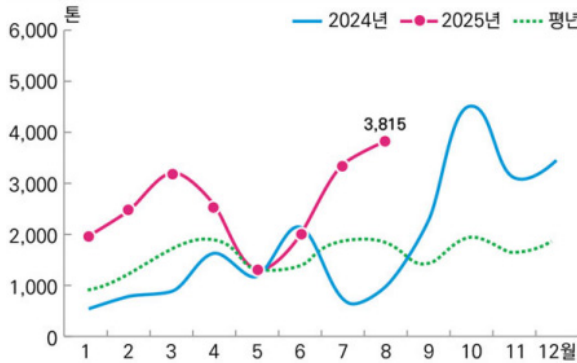
❖ 수출입동향(8월 오징어 수입량, 전월 대비 감소했으나 여전히 많은 수준)

8월 오징어 수출량은 전월 대비 15.7% 증가한 3,815톤으로, 작년 동월에 비해서도 네 배 정도 많았다. 국가별로 수출량을 살펴보면,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2,787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310톤), 베트남(284톤) 등의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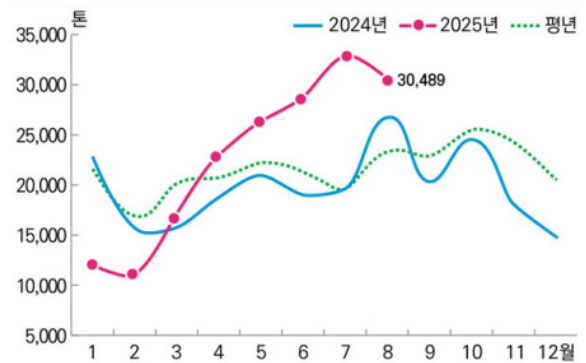
8월 오징어 수입량은 3만 489톤으로 전월 대비 6.7% 감소했으나, 여전히 3만 톤 이상으로 많은 수준이었다. 전월 대비 페루산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의 수입량이 감소했는데, 대만 및 칠레산 감소폭이 컸다.

국가별로는 페루산이 1만 6,203톤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중국산(6,847톤), 칠레산(1,096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오징어 수출량 추이 〉



〈 오징어 수입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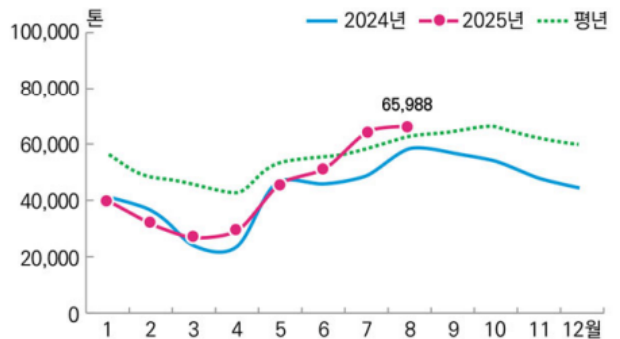


❖ 재고동향(전월 대비 3% 증가한 6만 5,988톤)

8월 말 오징어 재고량은 연근해산 생산 증가로 전월 대비 3.3% 증가한 6만 5,988톤이었으며, 작년 및 평년 동월보다도 많았다.

연근해산은 전월 대비 13.7% 증가한 1만 3,914톤이었으며, 원양산은 전월과 비슷한 5만 2,074톤이었다.

〈 오징어 재고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관측 9월호



8월 명태 국내 동향

원양명태 생산량, 명태 수입량 증가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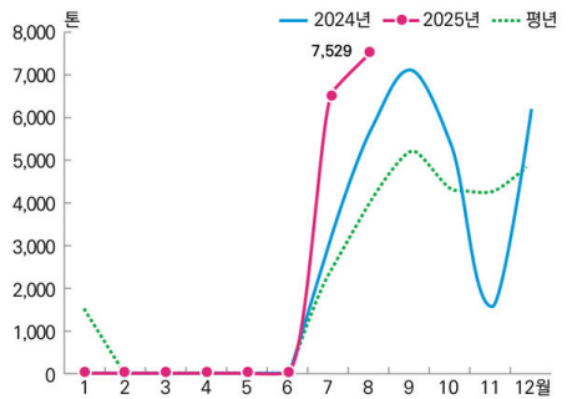
❖ **생산동향**(원양명태, 전년 및 평년보다 많아)

8월 원양명태 생산량은 7,529톤으로 전월 대비 17.0% 증가했다.

조업이 작년보다 빨리 시작되었으며, 반입 또한 비교적 이르게 이루어짐에 따라 전년 및 평년에 비해서 각각 32.3%, 88.9% 많았다.

한편, 러시아수역 내 배정받은 원양 명태 쿼터는 2만 5,000톤이며, 8월 31일까지 어획된 원양명태는 1만 7,802톤으로 배정된 쿼터의 71.2%를 소진했다.

〈 명태 생산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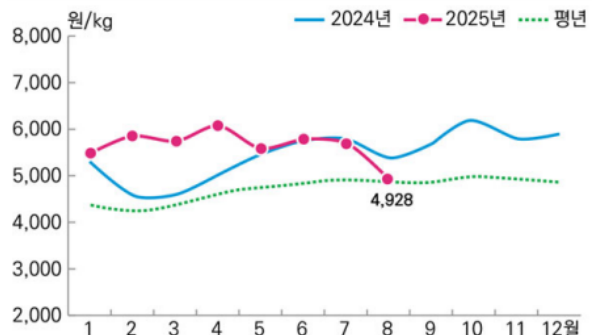
❖ **가격동향**(소비자가격, 전월 대비 2% 하락한 kg당 5,733원)

8월 명태(냉동) 도매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kg당 2,154원이었으나, 전년 동월보다 9.7% 낮았다.

명태(냉동) 소비자가격은 kg당 4,928원으로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각각 14.0%, 7.5% 하락했다.

이는 대형소매점의 할인행사가 이어진 가운데 전월에 형성되어있지 않았던 증품 가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 명태(냉동) 소비자가격 추이 〉





❖ 수출입동향(수입량, 전월 대비 7% 증가한 2만 9,794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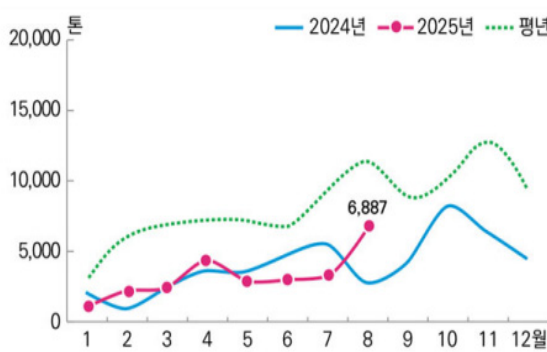
8월 명태 수출량은 전월 및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증가한 6,887톤이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보면, 냉동제품은 중국(2,498톤)으로 대부분 수출되었고, 냉동연육은 태국(3,052톤), 중국(770톤)으로 수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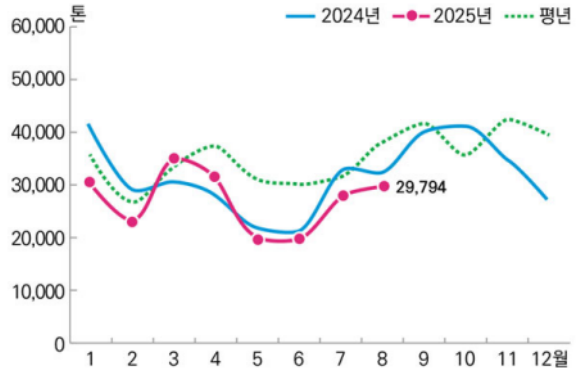
명태 수입량은 2만 9,794톤으로 전월 대비 6.6%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 및 평년 동월보다 각각 7.4%, 22.5% 적었다.

국가 및 제품형태별로 살펴보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러시아산 냉동명태가 1만 1,529톤으로 가장 많이 수입되었다. 다음으로는 러시아산 냉동필렛(6,751톤), 러시아산 냉동연육(4,284톤), 미국산 냉동연육(3,943톤) 순이었다.

〈 명태 수출량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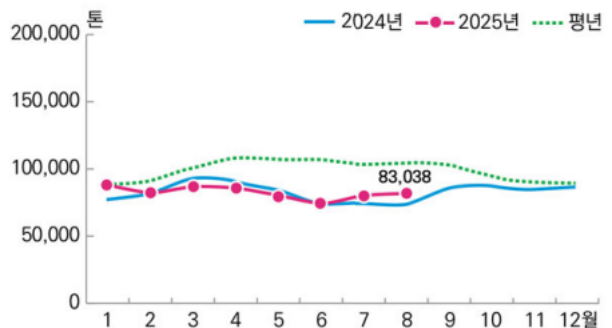
〈 명태 수입량 추이 〉



❖ 재고동향(재고량, 전월 및 전년 동월 대비 증가)

8월 말 기준 명태 재고량은 8만 3,038톤으로 반입 및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전월 대비 3.1%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보다도 9.9% 많았다. 그러나 평년 동월에 비해서는 20.8% 적은 양이었다.

〈 명태 재고량 추이 〉



* 출처: KMI 수산관측 9월호



2025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 발표

2024년 원양어업 생산량, 생산금액, 수출량 전년보다 증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지난해 원양어업에 종사*한 업체의 생산 및 수출현황,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여 '2025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35개사(허가업체 38개사) 186척(허가어선 198척)

2024년 원양어업 생산량(48만 톤), 생산액(1조 5,258억 원), 수출량(20만 톤)은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6.8%, 38.7%, 18.3% 증가하였으나, 다량어류의 수출단가 하락으로 인해 수출액(5,285억 원)은 전년(5,370억 원)보다 1.6% 감소하였다.

원양생산 어종 중 눈다랑어, 이빨고기, 남빙양 크릴을 제외한 대부분의 어종에서 전년 대비 생산량과 생산금액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반면, 원양 오징어의 생산량이 크게 늘어 국내 오징어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하였다.

2024년 국내 원양업계 총 매출액은 5조 3,204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고,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도 각각 48.9%, 34.9% 증가하여 수익성이 개선되었으며, 부채비율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감소와 국제 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탄력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원양산업 육성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통계를 토대로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통계조사 결과는 해양수산 통계시스템(www.mof.go.kr/statPortal) 및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해양수산부, 2025년 8월 27일자

한국-에콰도르, 해양수산분야 협력 논의

김성범 해수부 차관,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 장관과 면담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9월 1일 세종청사에서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그란하 에콰도르 생산무역투자수산부 장관과 양국의 해양수산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면담에서는 해양수산부가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수산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ODA 협력사업을 소개하고, 에콰도르가 요청한 수산·양식 및 어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새우 질병진단 기술 협력을 위한 시약 제공 및 진

단 역량 강화 등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UNOC)의 대한민국 유치를 위한 에콰도르의 지지를 요청하였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에게 에콰도르는 다양한 협력의 잠재력이 기대되는 국가이다.”라며, “이번 면담이 해양·수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출처: 해양수산부, 2025년 9월 1일자

한국원양산업협회 연락처

임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협회장	김영규 회장	589-1600	
해외협력본부장	신현애 전무	589-1602	해외협력본부
경영지원본부장	이성재 상무	589-1603	경영지원본부
비서	조한솔 대리	589-1601/1621	비서, 출납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홍보부	이성재 상무	589-1603	총괄(겸직)
		김효상 차장	589-1609	기획
		조성주 과장	589-1608	홍보
김민재 주임		589-1622	원양뉴스, 생산통계	
회원지원부	소기동 부장	589-1610	총괄	
	김영수 과장	589-1611	무역제도, 수출통계	
	최은혁 대리	589-1619	노사, 선원	
총무부	공길웅 과장	589-1605	총무, 회계	
	조성환 과장	589-1606	서무관리, 차량운영	
	이인수 사원	589-1607	원양어업경영자금	

구분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1부	박재운 부장	589-1612	총괄
		최봉준 과장	589-1613	국제협력
		백상진 대리	589-1614	참치선망
		김지원 사원	589-1620	참치연승
경영지원본부	해외협력2부	진호정 부장	589-1616	총괄
		최상진 주임	589-1617	오징어, 기타트롤
		김영진 사원	589-1618	북양, 콩치
경영지원본부	부산지부	이형균 이사	051-253-3388	총괄
		김현애 과장		수출, 반입
경영지원본부	공인계량소	이동주 팀장	051-253-3391	차량계량
		최광준 팀장		차량계량

해외수산물유통센터	센터장	이승두 센터장	044-868-7360	총괄
기획운영팀	김선미 팀장	044-868-7834	행정 총괄, 기획	
	김단비 행정관	044-868-7837	예산, 인사	
해외진출팀	이은 행정관	044-868-7836	ODA, 명예수산물관	
	신승호 행정관	044-868-7838	통계, OFIS	

해외수산물유통센터	국제협상팀	양재걸 전문관	044-868-7364	국제(수산)기구
국제협상팀	김수민 전문관	044-868-7363	국제(수산)기구	
	이승은 전문관	044-868-7831	국제(수산)기구	
		-	044-868-7833	국제(수산)기구

명예해외수산물관	세네갈	김점봉 수산물관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피지	김종태 수산물관	679-330-7188 ckpfj@naver.com
	인도네시아	박상천 수산물관	62-21-2287-4165 scpark@top-bridge.com
	사모아	오시영 수산물관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수산물관	64-3-344-1617 seajho@xtra.co.nz
	모리셔스	이동춘 수산물관	230-217-1700 kmarinelee@gmail.com
	아르헨티나	이상우 수산물관	54-223-495-0712 kargeexport@gmail.com
	가나	이윤홍 수산물관	233-303-200995 skshipafrica@yahoo.com
	파푸아뉴기니	정승화 수산물관	675-321-8137 jc651016@gmail.com

발행	2025년 9월 15일
원양산업	등록일자 1981년 8월 27일
제1185호	등록번호 서초라-00012호
발행처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협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6층 (양재동, 삼호물산A빌딩)
발행인	김영규
편집인	
☐ 팩스: (서울) 02-589-1630/1 부산) 051-253-3392, (세종) 044-868-7840 ◆ 홈페이지: www.kosfa.org	